



▲ 지난 6월 12일, 학생회관 앞 회전교차로 일대에서 우리 대학 청소년노동자들이 단체로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관련기사 4면. (사진: 박헌빈 기자)

예비웹툰 잡!카데미 토크콘서트

지난 10일, 우리 대학 온누리홀에서 '예비 웹툰 잡!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는 2024년 신설되는 '웹툰만화콘텐츠학과'와 관련된 행사로, 웹툰 스타작가 '역수씨'와 문화연구소 이재민 소장, 이야기 프로덕션 이기진 이사, 리플린(주) 김태영 대표가 진행했다.

'예비 웹툰 잡!카데미'는 웹툰 기획사인 'CNC레볼루션'과 인문콘텐츠대학이 공동 주최했다. 이 행사는 전북 지역에서 유일하게 웹툰만화콘텐츠학과가 신설되는 만큼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전국에서 100여 명의 고등학생과 50여 명의 학부모, 교육종사자, 취업준비생 등이 참석했다.

웹툰만화콘텐츠 학과장인 조윤숙 교수는 "설령 여러분이 만화가가 되더라도, 이후에 이야기를 이어 나가는 기본기 훈련이 부족하다면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문학의 지식을 같이 공부하고 찾아내며 지속해서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내공을 키우기 위해 웹툰만화콘텐츠학과를 예술대학이 아닌 인문콘텐츠대학으로 소속시킨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행사는 작가 '역수씨'의 특강으로 시작하여 웹툰 업계의 각계 분야에서 뛰고 있는 현역 종사자들이 자신의 작업 노하우를 나누는 등, 다양한 강의로 이어졌다. 강의 후에는 진학과 취업에 관한 상담으로 이어져, 질문자의 진로에 대한 진지한 대화가 이뤄졌다.

한편, 웹툰만화콘텐츠학과는 전북 지역에서 유일한 스토리 중심 웹툰 관련 학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학과에서는 4년 동안 이야기를 발굴하여 웹툰을 기획하고 제작하

는 여정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만의 콘텐츠를 창조하고 독자적인 지식재산권을 갖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송민호 기자(immino@jj.ac.kr)

중앙동아리연합회, 내부 논란 불씨 언제 꺼지나

최근 불거진 동아리 내 횡령과 성희롱이 중앙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에 정식 상정된 것에 더불어 중앙동아리연합회(이하 '중동연') 내부 논란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중앙동아리에 가등록한 상태인 A동아리는 동아리 SNS 단체 대화방에서 공개적인 성희롱과 임원진의 방관, 임원진의 동아리 회비 횡령 등의 사실이 확인됐다. A동아리 회장은 회비 관리에서 영수증을 조작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 또한, 그는 다른 동아리에서도 재정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추가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

중동연은 사건을 인지한 후 사실 여부를 조사했다. 그러나 A동아리 회장이 자퇴 의사를 밝힌 후 돌연 자취를 감춰 조사가 더딘 속도로 진행됐다. 이후 5일(월)에 온누리홀에서 임시대표자회의가 소집되었고, A동아리 폐부와 감사 진행이 의결됐다.

이어 중동연에 대한 논란도 재조명됐다. 지난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임원진을 모집하며 일각에서 내부 문제가 생겼거나 연합회장의 리더십이 부족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연합회장은 "지난 3월 이후 진행된 중동연 임원진 모집 당시 면접 후 관련 논란에

관해 설명해 당시 지원자들에게 밝혔다. 각자 판단한 후 임원 활동을 하기로 한 분들은 지금까지도 자리를 지키고 계신다"라고 말했다. 이어 "임원진 중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학이나 조기졸업, 코스모스 졸업 등으로 인원이 줄게 되어 회의를 통해 부득이하게 추가 모집하게 됐다"라며 제기된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성추행 논란에 관해서는 "중동연 임원진과 당사자에게 동의를 구해 내부적으로 합의한 사안이며, 당사자들에게 2차 피해가 갈 수 있을 우려가 있어 조용히 대응했다"라며 "이에 대해서는 지난 12일(월)에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소명(疏明)했다. 당사자와 합의된 내용만 밝히기로 약속했기에 더 이상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논란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답변드리지 않겠다"라고 답했다.

| 손민기 기자(minki70064@jj.ac.kr)

만 나이 통일법 시행

28일부터 법적, 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나이 계산법'을 제시했다. 계산법에 따르면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의 나이는 '이번 연도 - 출생 연도 - 1'의 결과값이다. 생일이 지났다면 '이번 연도 - 출생 연도'가 현재 나이가 된다. 일례로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은 1993년생은 '2023 - 1993 - 1'의 공식이 적용되어 29세가 되는 셈이다.

초등학교 취학 의무 연령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초등학교 입학 나이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과 같다. 만 6세가 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게 된다. 그러나 학급 구성원 내의 나이 차이가 날 수 있다. 학우와 나이가 다르기에 호칭 사용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법제처는 의문에 대해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다.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 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한국의 서열

문화도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 입장을 밝혔다.

연금 수급 시기, 정년 등도 마찬가지로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령상 나이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사례를 제외하면 만 나이 계산을 지속해 왔기 때문이다.

청소년에게 주류 및 담배를 판매할 때는 만 나이가 아닌 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된다.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지칭하는 법이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생일을 맞이한 사람에게는 법 제외를 규정하였다. 즉 2004년생의 경우 '만 나이 통일법'과 관계없이 주류·담배 구매가 가능하다.

만 나이 개념 도입 후 어색함을 느끼는 것에 대해 법제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의견을 발표하였다. "올해 상반기 중 연구용역과 의견조사를 진행해 올해 말까지 정비안을 마련할 것"이라 답변하였다.

| 하늬 기자(neul0603@jj.ac.kr)

코로나 위기 단계 하향, 무엇이 달라지나

지난 1일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었다. 위기 단계가 낮아지면서 모든 확진자에 대해 격리 의무가 해제되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나온 이후 3년 4개월여 만에 일상 회복을 맞는 것이다.

위기 단계 하향과 함께 7일간의 격리 의무는 5일 권고로 바뀌었다. 의료기관과 감염 취약 시설에서도 방역 당국이 부여하는 격리 의무는 사라졌다. 입원 환자나 감염 취약 시설 입소자에게는 7일 격리 권고가 적용된다. 정부는 아프면 쉬는 문화가 사업장 등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격리 의무뿐만 아니라 의원과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전면 권고로 바뀌었다. 다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에서는 당분간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한다.

흔히 '동네 병원'이라고 하는 의원에서는 간판에 '병원'이라는 표기를 할 수 없다. 따라서 '병원'이라고 적힌 의료기관에 방문할 때는 마스크를 쓰면 된다.

입국자들에게 입국 3일 차에 권고했던

PCR 검사 권고도 해제되었다. 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는 계속 운영되지만, 임시 선별검사소는 운영이 중단되었다.

정부의 방역 대응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하여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총괄하였으나 지난 1일부터 보건복지부 중심의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담당하게 되었다.

매일 오전 9시 30분에 공개되던 코로나19 일일 통계는 주간 통계로 바뀌었다.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전주 통계를 한 번에 공개하고 있다.

이렇게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방역 조치가 대부분 사라졌지만, 백신 접종과 치료제, 입원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은 유지된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싶은 기관은 시·군·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기관 선정을 위해 사업 신청 공고 및 종합심사 후 위탁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 최혜림 기자(chr9460@jj.ac.kr)

탄소중립포인트제

무분별한 에너지 사용은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상승시킨다. UN산하 IPCC가 발표한 '지구온난화 1.5°C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2100년 지구 온도는 현재보다 3°C가량 상승을 예견하고 있다. 그러나 2°C 이상 상승할 경우, 폭우와 해수면 상승 그리고 폭염과 같은 기후 재앙 도래 위험이 크다.

최근 다국적 기업들의 자발적 약속인 'RE100'이 선풍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이는 2050년까지 사용 전력 100%를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 에너지로만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한국 기업도 'RE100'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후 재앙 예방은 개인은 물론, 기업, 정부 모두가 힘을 합쳐 나가야 할 전 지구적 목표임을 알 수 있다. 환경부는 기후 재앙 예방을 위해 탄소중립포인트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탄소중립포인트제를 통해 탄소 중립 생활을 실천 및 경제적 혜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 제도는 일석이조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범국민적 녹색 생활 운동 취지를 반영하고 있다. 전자영수증 발급, 텀블러·다회용 컵 이용, 리필스테이션 이용, 무공해차대여 등의 다양한 녹색 생활 실천 활동에 따라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누리집(cpoint.or.kr/netzero) 회원 가입으로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다. 추가로 참여기업 시스템 회원 가입도 요구된다. 회원 가입을 끝마쳤다면 녹색 생활을 위한 실천 활동을 지속하면 된다.

예를 들어, 전자영수증 발급 시 건당 100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텀블러·다회용 컵 이용은 개당 300원이 지급된다. 친환경 제품 구매와 폐휴대폰 반납은 1,000원까지도 적립할 수 있다. 녹색 생활 실천 탄소중립포인트 누리집에서 더 많은 혜택을 엿볼 수 있다. 실천 항목 이행 횟수에 따라 최대 5,000원까지 차등 적립되는 사항 역시 누리집에 기재되어 있다.

녹색 생활을 통해 적립된 인센티브 포인트는 매일 말 한국환경공단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한다. 지급된 인센티브는 현금이나 카드 포인트로 변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기후 재앙 위기 극복을 위해 탄소 중립에 대한 인식 확산과 적극적인 실천이 중요하다. 하지만, 백신 접종과 치료제, 입원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은 유지된다.

| 하늬 기자(neul0603@jj.ac.kr)

전주대 "starT SP 장학금 신청하세요!"

우리 대학은 오는 30일까지 'starT 장학금' 신청자를 받는다. 올해부터는 SP 장학금을 직접 신청하는 사람만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7~8학기 재학 학생과 조기졸업 희망자(6학기 재학생) 중 SP가 1점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접수 신청은 전주대 이메일로 로그인한 후 QR코드로 접속하여 질문에 답변하면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방법으로는 계좌를 인스타 장학 계좌에 등록한 후 신청한다. SP 1점당 3,000원으로 환산하여 지급한다. SP 점수를 확인하는 방법은 PC와 전주대 앱이 있다. PC에서 온스타(로그인 필요)→star T→나의 star T 활동 인증에 들어가 확인하면 된다. 전주대 앱으로는 전체 메뉴→온스타→starT 프로그램 인증현황을 확인하면 된다.

SP 장학금은 StarT Program에 일환으로 대학의 이미지에 맞게 현대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위한 특성화 진로 교육프로그램이다. 그 기본적인 자질은 도전정신(Challenge) 능력(Competence) 공동체 의식(Community)이다. StarT Program은 이러한 자질을 개발하기 위해 학생들의 교내·외 활동의 참여 정도와 성과에 따라 일정 점수를 부여해 동기를 부여하는 포인트 시스템을 운영한다. 그중 일정한 성과가 눈에 보이는 경우 포인트를 부여하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 포인트(Scholarship Point:SP)가 있다.

SP를 얻는 방법은 학교에서 인정하는 장학금을 취득하고, 취득한 학기 내에 자격증

을 제출하는 경우 등급에 따라 포인트를 받는 '수퍼루키 장학금'이 있다. 또한, 외국어 시험을 응시하고 성적표를 제출하여 포인트를 받는 '라이징스타 장학금'이 있다.

한편, SP 관련 담당 부서인 각 단과대학 CA실에 자세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 △인문·사범대학(진리관 110호) 063-220-2081
- △사회과학대학(평화관 108호) 063-220-2088
- △경영대학(자유관 115호) 063-220-2096
- △의과학대학(천장관 118호) 063-220-2082
- △공과대학(공학 1관 204호) 063-220-2090
- △문화융합대학(예술관 104호) 063-220-2290
- △문화관광대학(지역혁신관 408호) 063-220-2091



| 오유진 기자(yujin03120@jj.ac.kr)

30개의 기업체와 함께하는 장애인 채용안내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6월 1차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안내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복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 평가 및 정책개발, 복지진흥, 자립 지원 등을 수행함으로써 장애인복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6월 1차 기업체 채용 안내 중 공공기관 채용은 3개, 민간기업 채용은 27개이고 수도권은 8개, 비수도권은 22개이다.

일자리 종류는 일반형 일자리, 복지 일자리, 특화형 일자리로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일반형 일자리는 전일제와 시간제로 구분되며 근무 시간은 주 5일 40시간인 전일제와 주 5일 20시간인 시간제가 있다.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중 선발할 예정이다. 업무 내용은 행정도우미, 전담 지원행정 도우미, 복지 서비스 지원 요원이 있다.

복지 일자리는 참여형과 특수교육 복지 연계형 두 가지가 있으며 근무 시간은 주 14시간 이내 월 56시간으로 같다. 선발 대상은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또는 전공과 미취업 학생이다. 단,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실습 가능 시점부터 참여할 수 있다. 업무 내용으로는 급식도우미, 도서관 사서 도우미 등이 있으며 참여자의 흥미와 작업 능력을 반영한 맞춤형 직무수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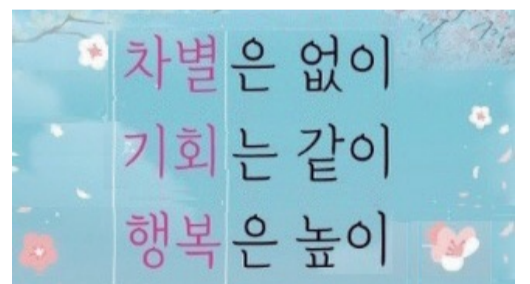
특화형 일자리는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와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이 있다. 근무 시간은 주 5일 25시간으로 같다.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는 만 18세 이상 지적장애 및 자폐성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선발한다. 또한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은 만 18세 이상 안마사 자격을 취득한 미취업 시각장애인만 지원할 수 있다. 업무 내용으로는 각각 요양보호사 보조와 어르신 대상 전문 안마 서비스 제공이 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장애

인은 매년 11월부터 12월 시·군·구 및 민간 위탁 사업수행기관에서 홈페이지 등 모집공고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문의는 시·군·구청 장애인일자리사업 담당과 또는 민간 위탁사업 수행기관에 할 수 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싶은 기관은 시·군·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기관 선정을 위해 사업 신청 공고 및 종합심사 후 위탁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 전지은 기자(uptoillie20@jj.ac.kr)



▲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

전주대신문은 이번 931호를 끝으로 2023 학년도 1학기 신문발행을 종료합니다.

즐거운 여름방학을 보내고 8월 30일 932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미사일 서울 경계경보, 오히려 불안감 가중시켜

서울시가 지난 31일 발송한 '경계경보 오발령' 재난 문자로 시민들이 혼란을 겪었다.

서울시와 행정안전부는 이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르게 설명했다. 또 재난 문자에는 경보를 발령한 이유나 대피 장소 등 구체적인 대응 요령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일본은 '국민 보호에 관한 정보'라는 제목이 붙은 대피 명령에서 "미사일 발사. 미사일 발사. 북한으로부터 미사일이 발사된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 안, 또는 지하로 피난해 주십시오."라고 지시했다.

그에 반해 한국은 일본보다 4분 늦은 오전 6시 34분에 "오늘 6시 32분 서울 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

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했다.

이처럼 양국의 대응 차이가 알려지면서 서울시의 재난 문자 시스템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육하원칙에 입각한 경계경보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국민이 동요 없이 대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공격 시 발령되는 공습경보가 내려지면 지하철역이나 지하 주차장 등 지하 시설로 대피해야 한다. 또, 어린이와 노약자가 있다면 먼저 대피시킨 후 지하 대피소로 이동해야 한다.

운전자는 고가도로나 도심지에 진입하면 안 되지만, 생화학 공격 시에는 반대로 높은 곳으로 피해야 한다.

대피소는 행정안전부 안전 디딤돌 앱과 국민 안전 재난 포털에서 대피소 위치를 찾을 수 있다. 지하철 역사나 주요 공공시설의 지하다.

| 전지은 기자(uptoillie20@jj.ac.kr)

방학계획



| 김예은 기자(ekfzmsdl@jj.ac.kr)

2023학년도 온라인 폭력 예방 교육 실시

2023학년도 폭력 예방 교육(법정의무교육)을 전주대학교 사이버 캠퍼스에서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교육 기간은 2023년 6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교육 대상은 교원(시간 강사 포함), 직원(비정규직, 조교 외주직원 포함), 학생(국제 학생, 대학원생 포함)이다.

폭력 예방 교육은 우리 대학 구성원 모두가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이다. 우리 사이버 캠퍼스에 로그인하면 법정의무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문화권이 다른 교내 구성원 외에는 국문 교육 수강이 원칙이다. 또한 완전한 이수를 위해 오프닝부터 형성평가와 만족도 조사까지 완료해야 수료 처리된다. 이수 확인 방법은 사이버 캠퍼스에서 법정의무교육 강의실에 접속하여 왼쪽 하단에 '강좌 이수

완료 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이전에 폭력 예방 교육을 들었어도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수강해야 한다. 하지만 다른 기관에서 4대 폭력(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 교육을 이수한 경우, 공식 증빙서류를 각 단과 대학 행정실을 통해 제출하면 교육 이수자로 인정된다. 공식 증빙서류는 교육 분야와 시간이 기재된 교육 이수증 혹은 이수 확인서를 말한다. 교내 사이버 캠퍼스에서 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한 경우, 수료증을 따로 제출할 필요는 없다.

만약, 외부 기관에서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 교육 중 하나만 이수한 경우, 4개 분야 중 하나만 인정되고 나머지 분야는 미이수로 처리된다. 이런 경우 나머지 교육을 이수해야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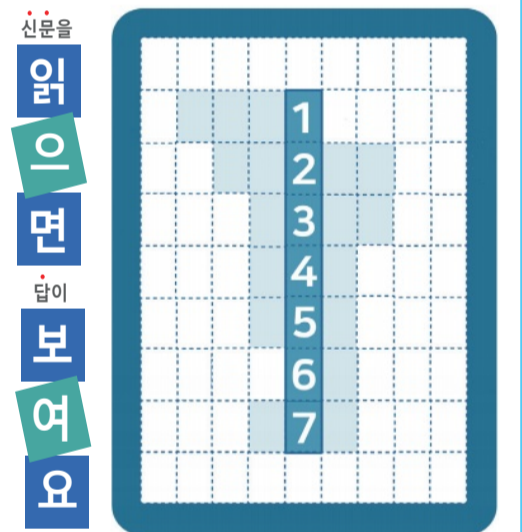
다. 하지만 우리 대학에서는 폭력 예방 교육을 통합 교육으로 운영한다, 따라서 사이버 캠퍼스에서 일부만 수강하면 이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온라인 폭력 예방 교육은 전주대학교 인권센터(학생회관 203호)에서 담당하고 있다. 궁금한 점은 063-220-2406~8, 2586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송민호 기자(immino@jj.ac.kr)

jnbs 이달의 헤드라인

- 신문방송국 2023-2학기 신입 기자·국원 모집 중(2학기 내 상시 모집 예정)
- 5월 30일, 전주대·예수대·전주비전대 글로벌대학 공동 신청
- 6월 7일, 2023학년도 음악학과 신입생 연주회 개최
- 6월 7일~12월 31일, 2023학년도 법정의무교육 진행
- 6월 10일, 인문콘텐츠대학 웹툰만화콘텐츠학과 신설 기념 토크콘서트 진행
- 6월 10일, 한식조리학과 제21회 졸업작품전 '향해' 개최
- 6월 19일~22일, 게임콘텐츠학과 졸업전시회 진행
- 6월 26일~7월 31일, 대학 직장 학생예비군 훈련 진행
- 전라북도 김관영 도지사 '지역과 대학 발전을 위한 RISE'
-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 '나 혼자서 무서움, 다 함께라면 당당함'



1. ○○○○을 통해 적립된 인센티브 포인트는 매월 말 한국환경공단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한다.
2. '예비 웹툰 잡키데미'는 ○○○○인 'CNC레볼루션'과 인문콘텐츠대학이 공동 주최했다.
3. 연금 수급 시기, 정년 등도 ○○○○로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4. 복지 일자리로는 ○○○○과 특수교육 복지 연계형 두 가지가 있으며 근무 시간은 주 14시간 이내 월 56시간으로 같다.
5. 음력 보름날 밤에 뜨는 둥근달을 ○○○○이라고 한다.
6. 중앙동아리에 가동록한 상태인 A동아리는 동아리 SNS 단체 대화방에서 공개적인 성희롱과 임원진의 ○○○○, 임원진의 동아리 회비 횡령 등의 사실이 확인됐다.
7. 우리 대학은 오는 30일까지 'starT ○○○○' 신청자를 받는다.

※ 930호 정답: 화목한가정의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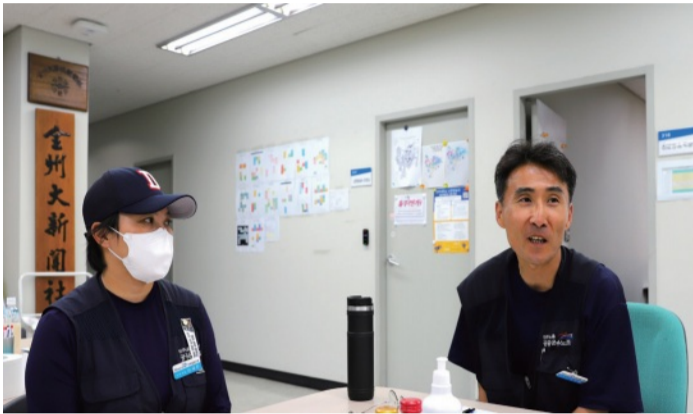
[930호 정답자]
 -한문교육과 이예진 -경영학과 이승아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정난

알림
 ※보다많은 학우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2회 연속 당첨은 제한하며, 동일 학과는 2명으로 제한합니다.
 ※ 정답을 학과, 학번, 이름 그리고 연락처와 함께 7월 12일(수)까지 카톡 플러스친구 '전주대신문사'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3명을 뽑아 음료 기프트콘을 드립니다!
 - 정답자 발표: 932호(8월 30일) -

‘나 혼자면 무서움, 다 함께라면 당당함’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 이주철 지부장, 사무국장 이세진



▲좌: 사무국장 이세진
▲우: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 지부장 이주철

우리 대학 내에서 청소노동자 단체 시위와 서명운동이 여러 차례 목격됐다. 이들은 노동자 생활임금과 퇴직금의 올바른 정산 그리고 근무 인원 총원 등의 내용을 포함한 ‘포괄적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있었다. 작년까지는 청소노동자의 휴게실 개편, 휴식 여건 보장 등의 내용으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며 간혹 청소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학교의 주 구성원인 학생들은 본 시위와 관련된 내막을 자세히 모르고 있다. 그저 학교와 노동조합 일원들만이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학생들에게 생긴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대학의 환경정리와 청소노동자들을 관리하는 공공운수노동조합 전북평등지부의 이주철 지부장과 사무국장 이세진 인터뷰를 요청했다. 지부장과 사무국장은 지난 5일에 대학신문사(학생회관 320호)로 방문하여 약 50분 동안 인터뷰를 진행했다. 주로 시위와 서명운동의 목적과 이유, 청소노동자란 직업 설명 그리고 근무 마음가짐 등에 관한 내용을 질의하였다. 노동자들의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하나, 청소노동자 정리해고하는 용역입찰 중단하고 적정인원 총원하라! 둘, 청소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이 아닌 전라북도 생활임금 보장하라! 셋, 고용 불안, 저임금 문제! 진짜 사장이 전주대학교가 해결하라! 넷, 청소노동자 포괄적 고용승계 보장하고, 향후 직접고용 방안 마련하라!

Q. 인터뷰를 위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전주대학교에서 청소하는 노동자들이 가입된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 지부장 이주철(우), 사무국장 이세진(좌)이라고 합니다.

Q. 교내에서 청소하고 계시는 노동자분들은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직업에 대한 설명, 담당하고 있는 청소 구역 등)

A. 우선 기본적으로 건물 내부의 환경정리와 쓰레기 처리 그리고 사무실 내부를 제외한 화장실을 포함한 모든 내부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외부 인도나 휴먼 구역 그리고 휴게 장소, 기숙사, 행사나 축제 장소 등 교내에 속해 있는 모든 외부 구역도 청소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비실에서 근무하는 경비원과 같이 교내 환경정리를 서로 도우며 진행했으나, 지금은 무인 경비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따로 경비원 없이 배정된 노동자 인원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주대학교에 있는 모든 공간이 청소 구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Q. 청소노동자들은 어떤 생각이나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하고 계시나요?

A. 현장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의 마음을 100%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본인의 노동으로 이 공간이 누구를 위해 혜택을 보느냐는 것입니다. 사실은 누가, 어디서, 어떤 청소를 하든지 그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쾌적한 환경에서 활동하시길 바라는 마음이 가장 클 것

입니다. 화장실 바닥에 휴지 조각 하나에 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업무에 임하는 사명감이 노동자들이 가진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가짐으로 일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학교에 대한 배신감과 속상함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시위를 통해 근로자 대우와 업무 환경 등을 정상적으로 바뀔지 모르지만, 건물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성원들은 잘못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본인의 일터에서 그냥 묵묵히 ‘나는 그냥 나의 일을 하겠다’라면서 근무하는 실정입니다.

Q. 최근 들어 교내에서 청소노동자들의 단체 시위와 건물 내·외부에서 서명운동까지 종종 목격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시위를 진행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의 전주대학교와 전주비전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은 2000년까지 대학교 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신동아학원이 “온리원”이라는 자회사를 설립하고 청소노동자들은 대학교 직원에서 용역노동자로 하루아침에 전환되었고 “온리원”은 대학교 용역비용을 종착점으로 ‘저가마트 온리원 천남마트’를 운영하면서 이 따라 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을 천남마트에 불법 파견하여 일을 시켰습니다.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으로 8시간 노동을 6시간 안에 해야 하는 살인적인 노동 강도와 수년째 임금은 동결되는 방식”으로 노동력과 임금이 착취해왔습니다. 2011년 전북평등노동조합을 가입하여 오랜 투쟁 끝에 정상적인 근무시간 회복,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업체선정, 업체와 임금 및 단체협약을 지금까지 체결해왔습니다.

전주대학교는 항상 최저임금 수준으로 용역입찰을 해왔고, 3년마다 용역 업체의 계약이 만료되어 2023년 올해가 바로 업체가 바뀌는 해입니다. 하여 우리 노조는 4월 18일 전주대학교와 면담을 진행하고 2023년 청소노동자 용역입찰에서는 최소 전라북도 생활임금 및 노동력 확대에 따른 인원 총원, 포괄적 고용승계가 되어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학교 측은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재정이 열악하여, 임금 및 고용 확대는 불가능하나 입찰 공고 시 포괄적 고용보장을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전주대학교는 청소노동자들과의 면담 7일 후 4월 25일 ‘[긴급]청소용역입찰공고’를 냈고 ‘과업 지시서’에는 청소 면적은 확대, 인원 축소 그리고 청소노동자 정년 시 자연 감소하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을 정리 및 해고하는 내용으로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전주대학교에서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운영하는 용역 업체도 모르게 기습적으로 입찰 공고를 냈고 고용 불안을 야기해왔습니다. 이는 명백히 15년간 노동조합을 통해 하나씩 쌓아 올린 노동 조건을 후퇴시키고 청소노동자들을 구조 조정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대학교에서는 ‘임금 및 노동 조건 관련해서는 학교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용역 업체랑 얘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과업 지시서’에는 본인이 청소했다라도 사실상 불결하거나 학교 또는 건물 사용자 측이 미비하다고 판단하여 재청소를 명할 때는 ‘시간과 횟수에 불문하고 재청소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만 보아도 전주대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의 사용자는 전주대학교라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직접적 사용자임을 부정하고 필수노동자인 전주대학교 청소노동자를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전북평등지부는 전주대학교의 행위에 대해 규탄하고 청소노동자 정리해고 입찰 중단과 청소 인력 확대, 정상적인 생활임금 보장, 더 나아가 전주대학교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투쟁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5월 9일(화) 오전 10시 전주대학교 본관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Q. 다음 학기부터 청소노동자 정원이 45명에서 40명으

로 줄어듦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노동조합이 보았을 때 지금보다 몇 명 정도 증원이 되어야 임금 문제나 업무 환경 등이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A. 일단은 법률적으로 청소하는 구역 면적 당 몇 명이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법적인 명문도 없으니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어떤 건물이든 공간이든 근무하는 데 꼭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인원 근무 조건이 있습니다. 가까운 곳 예시를 들자면 전라북도청이 있는데, 도청은 적정인원 30명을 고용하고, 정규직 전환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도청에 비해 전주대학교의 면적은 무려 5~6배나 됩니다. 그러나, 저희 고용인원은 45명입니다. 면적에 비해 무척이나 적은 인력이 투입되고 있었습니다. 노동 강도도 마찬가지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의 문은 대부분 일반 철문이었지만, 리모델링으로 유리문이나 벽도 많아지고 있죠. 일반 철문은 관리하기 쉽지만, 유리문은 적은 시간에도 티가 많이 나기 때문에, 노동자가 볼 때 업무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휴가로 인한 공백을 다른 구역 인원이 와서 그 날 2배로 일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산술적으로 정확히 노동 인력과 임금을 5~6배 늘려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본인들이 청소노동자였다라도 우리와 같은 생각과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Q. 이번 시위와 서명운동이 청소노동자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하시나요?

A. 저희는 그저 전주대학교 내에서 우리도 교내 구성원이고, 당당하게 우리의 노동이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 노동은 대학교에 꼭 필요한 노동이고, 노동자들도 학교에 있는 구성원으로서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을 같이 공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이면 그 자체만으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을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주인 의식을 가지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Q. 교내 구성원에게 이것만큼은 꼭 전달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권리를 쟁취하는 과정은 상당히 시끄럽고 많은 힘이 들어갑니다. 학생들은 시끄럽게 시위하는 장면만으로 귀찮고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은 단순히 지식만 쌓는 공간이 아니라 누군가 침해당하는 권리는 곧, 본인의 권리일 수 있고, 앞으로 본인이 겪어야 할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위에 공감해주고 서명운동에 동참해준 모든 분에게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이렇게 자기주장을 표현해주는 것이 진정 민주주의 사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권리 말고도 앞으로 생겨날 권리들은 본인 권리가 중요한 만큼 타인의 권리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사 | 박헌빈 기자(hans8150@jj.ac.kr)
손민기 기자(minki70064@jj.ac.kr)
디자인 | 송단비 기자(danbee425@jj.ac.kr)

김관영 전라북도지사가 알려주는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 체계, RISE



RISE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이하 '라이즈')로서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 확대와 규제 완화를 통해 지자체 주도로 대학을 지원하여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 시범지역을 선정해 오는 2024년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2025년 전 지역에 도입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지역에 전라북도를 포함한 7개 지역이 선정되어 전라북도도 당장 올해부터 라이즈 운영을 위한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사업을 주도하는 김관영 전라북도지사에게 라이즈 운영 계획과 여러 궁금한 점을 물어보았다.

Q. 전라북도가 라이즈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선정을 위해 전라북도가 큰 노력을 했을 것 같습니다.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이번 라이즈 시범지역 선정은 전라북도를 비롯해 도내 대학과 혁신기관, 기초자치단체 등 모두가 힘을 합쳐 이루어 낸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주대학교는 '전북지역대학 총장협의회 회장'으로서 공모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도(道)와 대학 간 연계·협력에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박진배 총장님을 비롯한 전주대학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전라북도는 도내 대학과 연구기관, 시·군 등 지역 내 모든 혁신기관과 협력하여 지역과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인재가 다른 지역으로 떠나지 않고, 지역에 정주하는 지역 발전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Q. 지역 현안별 중점 대응 대학을 지정해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싱크탱크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고 들었습니다. 대학들은 각각 어떤 현안을 담당하나요?

A. 교육부는 향후 10~15년을 대학 혁신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대학의 과감한 대전환 및 전면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대학의 혁신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때보다도 지자체와 대학이 지역사회의 핵심 기관으로서 공동의 목표와 가치 아래 더욱 소통하고 협력해야 할 시기입니다.

다들 '말피의 눈물'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유럽 최고의 조선업 중심지였던 스웨덴 말피 시(市)에 있던 코쿰사(社)의 대형 크레인이 단돈 1달러에 우리나라에 팔려 올 때 스웨덴 언론에서는 말피가 울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후 말피의 눈물은 지역과 산업의 침체를 표현하는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런 말피를 다시 살린 건 대학의 혁신이었습니다. 말피 시와 말피 대(大)가 함께 혁신적 인재 양성과 창업 육성, 연구개발을 지원하였고, 말피 시는 20년 만에 침체한 도시에서 유럽 최고의 스타트업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더불어 젊은 도시로 탈바꿈했습니다. 지역을 대학이 거점이 돼 일으킨 말피 시의 사례처럼 도내 대학에서도 지역 밀착형 혁신을 다양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열린 자세로 시대 변화에 맞게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경제와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기관으로서 고민과 역할을 해야 합니다.

Q. 2025년 전국 도입 전까지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실 예정인가요?

A. 지역 주도의 대학지원 사업을 관리하고 선정·평가 등을 전담하는 라이즈 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7월 내에 전북테크노파크에 JB지산학협력단(전라북도 라이즈센터)을 부설하고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에 의한 법인 신설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라이즈 체계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2025년 이내에 전북테크노파크로부터 법인을 분리·신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라북도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한 '지역대학지원 5개년 라이즈 계획'을 수립하여 7월 중 교육부와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라이즈는 '단위 사업'이 아닌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를 의미합니다. 그간 지역과 연계되지 않은 분절적인 대학지원사업을 '지자체 주도'로 지역 발전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체계의 대전환입니다. 국비와 관련된 사업들은 비록 예산을 라이즈 센터에서 지출하지 못하더라도 지역 발전과 연계된 계획이 수립되도록 역할을 할 것이며, 컨설팅이나 성과관리를 통해 성공적인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Q. 라이즈가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지자체와 대학 간의 소통이 가장 중요할 것을 보입니다. 신설되는 지산학협력과가 지자체와 대학 간의 소통을 담당하게 될까요?

A. 그동안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은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핵심 기관이자 전북 인재 양성과 혁신을 이끌어가는 주체로서,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는 같았으나 별개의 독립기관으로서 소통이 단절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는 도·교육청·대학이 함께 인재 양성과 지역 발전을 위한 협치를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해 10월 교육전담 부서인 교육협력추진단을 신설했으며, 대학협력팀을 만들어 여러 부서에서 나뉘어 추진되던 대학 업무를 일원화했습니다. 특히 지자체의 고등교육과 관련된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도내 대학이 대학협력관을 도청에 파견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주대학교에서 도내 대학 중 제일 먼저 대학협력관을 파견해 도내 대학과의 협력에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전주대학교의 적극적인 협력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전라북도는 대학 관련 업무를 정비하여 라이즈 추진과 지역대학 지원 관련 업무를 기획 총괄하는 대학지원 전담 부서인 '지산학협력과' 신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올해 하반기 설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학 관련 정책 수립부터 지역혁신사업(이하 'RIS'), 지자체-대학 연계협력,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등 대학과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의 업무를 주관할 예정입니다. 부서 신설과 별개로 전라북도와 대학 간 소통과 협력을 위해 올해 2월 '전라북도-대학 상생발전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벌써 상반기에만 26회 이상 도와 대학이 만났습니다. 앞으로도 지자체-대학 간 상생협력 및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소통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Q. RISE 사업이 도내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까요?

A. 국내 통계업체에서 2022년에 MZ세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워라밸'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66.5%로 전체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MZ세대들은 일과 삶의 균형을 일자리 선택의 중요 기준으로 보고 있으며, 복지제도와 수평적 문화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최근 주요 대기업에서는 수평 호칭 문화가 확산하여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추구하는 MZ세대 직원들에 맞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일자리 정책에서도 단순히 양적 확대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MZ세대들이 희망하는 문화가 지역 일자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

내 기업 및 대학과 충분히 논의할 계획입니다. 라이즈를 통해 일자리 외에도 교통, 놀거리, 즐길 거리 등 정주 여건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복지와 생태환경, 재난 및 안전관리, 체육, 문화예술 등 정주 여건 개선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도내 대학 학생들이 전라북도 출신임을 자랑스러워하고 고향에 정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대학지원의 권한을 지자체에서 위임받은 경우는 처음이라 기반과 경험이 부족하여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있나요?

A. 라이즈와 관련해 지자체의 전문성 부족에 대한 우려와 선택과 집중 지원에 대한 반발, 염려에 대한 두려움 등 큰 우려가 있습니다. 먼저, 지자체의 전문성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의 역할을 존중하고 경청하며 지역대학을 살릴 수 있도록 지속해서 소통할 것입니다. 둘째, 선택과 집중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선택과 집중이 꼭 소수를 위한 다수의 희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는 대학이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혁신거점이 되도록 선택과 집중을 할 것입니다. 지역 산업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융합 및 재구조화 등 교육혁신을 지원하고, 대학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 연구 및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지산학 연계협력을 강화하는데 선택과 집중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와 지자체 대학 간 협업·조율, 이른바 Co-Design 절차를 통해 교육부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대학과의 신뢰를 밑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균형성 있게 대학을 지원할 것이며, 이를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A. 라이즈는 대학지원의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이양하고 지역 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대학지원체계를 의미합니다.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직접 대학으로 재정지원을 했다면, 이제는 중앙정부에서 지자체 지정 전담 기구에 예산을 지원하고, 지자체 주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대학 재정을 지원하는 체계의 대전환이 바로 라이즈입니다. 결국 라이즈의 목적은 지역의 현안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을 통해 '인재 양성-취·창업-정주'에 이르는 선순환 발전 생태계를 구축하여 지역소멸 위기와 지역대학 위기를 동시에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도내 대학의 전라북도 지역 재학생 비율은 51.7% 수준으로 다른 지역 총원율이 높아 도내 대학 운영의 어려움은 물론, 대학 졸업 후에도 지역에 정착하지 않고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의 성장 잠재력이 향상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기업 유치에 전 도정의 역량을 결집하고 있으며, 융복합농생명과학과 미래신소재, 수소 산업, 이차전지 등 에너지산업과 관련된 투자수요가 새만금을 중심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갖춘 발전 잠재력 및 역량을 심분 활용해 지역의 인재가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에 정주하는 지역 발전 체계 구축을 통해 청년과 아이들의 웃음꽃이 가득한 살맛 나는 전라북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박진배 총장님을 비롯해 전주대학교의 많은 분이 전라북도에 큰 애정과 관심으로 늘 도움을 주고 있어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응원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항상 전주대학교 발전의 길에 함께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Z세대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7%를 차지하며 시장 내에서 핵심 소비층으로 자리 잡았다. 이들은 자신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상품을 선택하고 과감히 소비한다. 향후에도 지속해서 소비력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래는 MZ세대의 다양한 소비문화이다.

미코노미

‘미코노미’란, 나를 뜻하는 ‘me’와 경제를 뜻하는 ‘economy’의 합성어이다. 미코노미는 2010년대만 하더라도 ‘이유 불문하고 나를 위해 아낌없이 쓰는 소비 행위’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됐다. 그러나, 홀로 소비 생활을 이어가는 1인 가구가 점차 늘어가면서 단순히 평평 쓰기보다 ‘나에게 가치 있는 소비에 집중한다’라는 의미로 변화했다.

미코노미족은 자신의 마음에 드는 상품이라면 높은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구매를 망설이지 않는 소비 심리, 일명 ‘나심비’에 따라 소비한다. 또한,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아닌 자신만의 기준에 따라 살아간다. 다른 사람들에게 무의미한 물건과 소비처럼 보여도 ‘나에게 의미 있는 소비’를 중요하게 여긴다. MZ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자신의 존재감을 뚜렷하게 인식하고 자기 캐릭터를 발전시켜 나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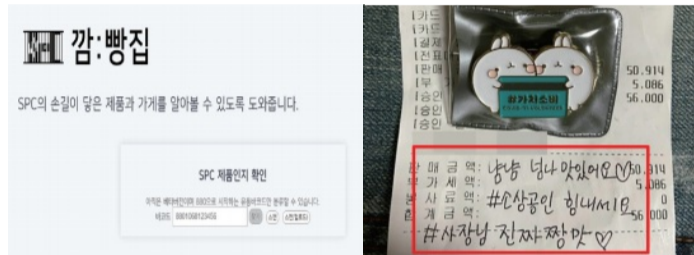
미닝아웃

‘미닝아웃’이란, 신념을 뜻하는 ‘meaning’과 벽장에서 나온다는 뜻의 ‘coming out’이 결합한 합성어로, 자신의 취향 혹은 사회적 신념 등을 소비 행위를 통해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미닝아웃은 과거의 불매운동이나 구매 운동이 확장된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과거에도 소비자들은 환경이나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제품을 선택하고 아동복지나 동물 복지 등을 살폈다. 그러나 미닝아웃은 심각하거나 진지한 움직임보다는 즐거운 놀이를 하듯이 SNS를 통해 공유하고 비슷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행동하는

것이 주요한 특징이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이나 브랜드가 쉽고 빠르게 타격을 받는 이유도 SNS의 확산력과 그 중심에 MZ세대가 들어서면서 시작됐다. 논란이 발생하면 ‘불매운동’을 통해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며, 반대로 착한 기업, 착한 브랜드라고 입소문이 나면 ‘돈쫄’이라는 방식으로 응원 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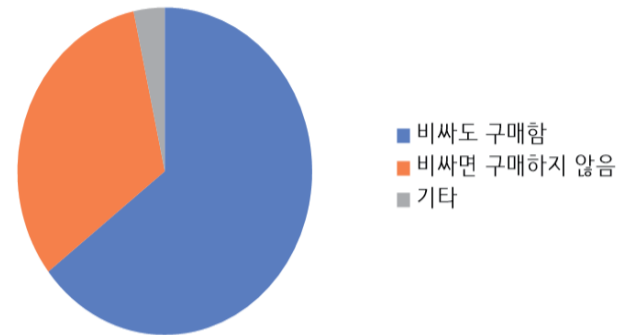
▲ 불매운동 사례 (출처 - 감:빵집) ▲ 돈쫄 사례 (출처 - 인스타그램)

그린슈머

‘그린슈머’란, 녹색을 뜻하고 환경을 상징하는 ‘green’과 소비자를 뜻하는 ‘consumer’의 합성어이다. 이들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조금 더 비싼 제품을 소비할 의사가 있고 제품의 생산방식과 포장재, 원료 등의 친환경성을 고려하며, 친환경 경영을 추구하는 기업을 선호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MZ세대는 환경 변화와 기후 변화를 온몸으로 느낀 세대이기 때문에 쓰레기 배출에 더 민감한 경향이 있다.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MZ세대가 바라보는 ESG 경영과 기업 인식 조사’에 따르면, MZ세대 380명 중 64.5%가 더 비싸도 ESG 실천 기업 제품을 구매하겠다고 답했다. 실제로, 지난 4월, 롯데칠성음료는 자사의 ‘아이시스8.0 ECO’ 등 무라벨 생수가 지난해 전체 생수 판매량의 51% 비중을 차지하며 대세 제품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

MZ세대의 ESG 실천기업 제품 구매 의향



▲ 구매 의향 그래프 (출처 - 대한상공회의소)

디깅소비

‘디깅소비’란, ‘파다’라는 뜻의 영어 단어 ‘digging’과 소비(消費)를 붙인 합성어이다. 이 용어는 율로(YOLO) 처럼 즉각적인 만족을 중심으로 한 소비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단기적인 만족을 넘어서 소비의 가치가 얼마나 오래 유지되는지에 초점을 둔 소비 방식을 의미한다. MZ세대는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를 새롭게 탐구하고 알아가는 과정 자체를 일종의 놀이처럼 즐기는 경향이 있다. 스포츠, 요리, 예술 등 다양한 취미 분야를 더 깊이 탐구하고 배움으로써 자신의 취향과 가치를 확장하는 소비를 선호한다. 디깅 소비는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내지 않고 시간과 비용을 꾸준히 투자하여 특정 분야를 진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MZ세대는 꾸준히 체득한 지식과 경험은 쉽게 사라지지 않으며 소비 가치가 지속된다고 여기기 때문에 디깅 소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기사 | 송민호 기자(immino@jj.ac.kr)
디자인 | 김지혜 기자(rwg1130@jj.ac.kr)



- 제목: 우리들
- 감독: 윤가은
- 장르: 드라마
- 상영시간: 94분
- 개봉: 2016.06.16
- 등급: 전체관람가

언제나 혼자인 주인공 ‘선’. 체육 시간에 피구를 하기 위해 팀을 만들 때 지목되지 못하고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선택됩니다. 그렇게 들어간 팀에서도 아이들의 눈치를 살피다 다른 팀 친구가 금을 밟았다고 타박하자 아니라 했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억울하게 아웃되어 나갔지만 아무도 그에게 공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 선에게도 기회가 왔습니다. 가장 동경하는 친구 ‘보라’의 생일파티 초대장을 주워주었지만 보라는 딱히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던 순간 보라가 선에게 제안합니다. 자신과 친한 친구들이 방학식에 늦게까지 청소해야 하는데 대신 청소해준다면, 자신의 생일파티에 초대하겠다고 합니다. 친구가 되고 싶은 선은 모두가 일찍 떠난 빈 교실에서 홀로 청소하고 있습니다. 이때 막 전학을 와 문 앞에서 서성이는 ‘지아’라는 친구를 만납니다. 둘은 대화하려 하지만 선생님이 지아를 부르는 바람에 이들은 서로의 이름만 알게 됩니다.

다음날 선은 보라의 생일파티에 어떤 선물을 할지 고민하지만, 용돈은 그리 많은 상황이라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실로 만든 팔찌를 선물로 가져갑니다. 하지만 보라가 알려준 주소는 보라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선은 힘없이 돌아오는 길에 지아를 만났습니다. 지아는 “선아 네가 아니었으면 동네 헤맬 뻔했어, 고마워”라고 말하며 보라에게 전하지 못한 팔찌에 관심을 가집니다.

선은 여름방학이 지나면 같은 반이 될 지아와 친구가 되어 행복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하지만 여름방학이 끝나고 개학식 날지 아는 선에게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영화의 특징으로는 출연한 어린 배우들이 연기경력이 없는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윤가은 감독은 대본을 숙지하기보다는 상황극, 리허설을 통해 연기 지도했습니다. 그래서 배우들의 대화, 표정 그리고 영화 자체의 분위기를 더욱 현실적으로 묘사하여, 마치 영화 속 세계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2016년도 초등학교 4학년들이 주인공인 만큼 여러분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고, 누구나 한 번쯤 친구 관계에 문제를 겪어봤다면 배우들의 연기에 공감할 수 있는 영화입니다. 이번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름이라는 계절이 느낄 수 있는 영화로,

오늘, 이 영화 어때요?

기사 | 오유진 기자(yujin03120@jj.ac.kr)
디자인 | 김지혜 기자(rwg1130@jj.ac.kr)

'간호법' 이 뭐길래 세상이 시끄러울까?



최근 '간호법'이 뜨거운 감자다. 간호법 제정을 두고 의료계가 큰 갈등을 빚고 있다. 간호사 측에서는 지역별로 법을 구분해 전문적인 간호인력 양성과 효율적인 간호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 말한다. 간호사 이외의 의료인 측에서는 이미 의료법에 각 지역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현재까지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간호법 분리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 속 지난 4월 27일,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간호법이 제정되나 싶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의료계의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에게 간호법은 아직 익숙하지 않고 크게 와닿지 않는 내용이다. 누군가는 '이미 의료법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데 굳이 분리해서 법을 만들어야 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누군가는 '필요하니까 법을 따로 만들어 달라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각자의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간호법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자 한다. 이에 우리 대학 간호학과 조혜경 교수님께 관련된 질문을 해보았다.

Q. 의료계의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간호사의 인력 부족 현황은 어떤가요?

A.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연간 16.9회입니다. OECD 국가 1위이죠. OECD 평균은 6.8회입니다. 이에 대비해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에 근무 중인 간호사 수는 OECD 평균 8.9명, 한국은 3.8명입니다. 국내 간호사 면허 소지자가 46만여 명이지만 의료기관 즉 임상에서 활동하는 간호사 수는 24만여 명에 불과합니다. 환자 대비 간호사 부족 현상은 결국 간호사들을 임상에서 떠나게 하고 있습니다. 과중한 업무가 간호사를 이직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간호사들의 이직 경험률은 73%에 이르며 신규간호사의 1년 이내 이직률도 45.5%에 이릅니다. 간호사의 인력 부족은 결국 환자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간호사들의 평균 근무연수가 7년 8개월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숙련된 간호사 수가 부족합니다.

환자를 24시간 돌보는 의료 직군은 사실상 간호사입니다. 진단받고 수술받은 후 입원해서 완쾌하기까지 누구와 의사소통하며 지내나요? 여러분이 병원에 면회 가거나 입원하셨을 때 경험을 비추어 보시면 알 것입니다. 환자를 안전하게 보호 관찰하기 위해서도 오랜 경력을 가진 간호사들이 많을 필요가 있습니다. 경력간호사의 경력단절은 사회적 비용, 사회적 생산성 손실뿐 아니라 환자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Q. 언론에 의사의 과중한 업무를 나누기 위해 만들었다는 '전담간호사'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간호사와 전담간호사(PA), 전문간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PA(physician assistant)는 의사를 돕는 사람입니다. 외국의 경우 이 역할을 다른 직군들이 하기도 합니다. PA를 전담간호사로 부르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PA 업무를 간호사들에게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임상 경력이 뛰어난 간호사가 PA 역할을 해나가기 때문에 전담간호사라 부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PA가 하는 많은 행위가 사실은 의료행위라 현재의 의료법에 따른다면 불법이 되는 것이지요.

전문간호사는 의료진들과 협동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의사의 진료 보조로서 간호업무의 연장이 아닌 전문가로서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전문간호사는 보건 간호사와 마취간호사, 정신 간호사, 노인간호가, 임상전문간호사 등 총 13개 분야가 있으며, 전문간호사 과정 대학원을 졸업하고 전문간호사 시험을 통과해 면허를 취득하게 됩니다. 현재 전문간호사 자격 취득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전문간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병원으로서도 전문간호사를 고용하는 것보다 PA를 고용하는 것이 경제적인 수 있어서인지도 모릅니다. PA와 전문간호사는 엄연히 다르며 전문간호사는 간호업무를 위한 자격 분야의 전문자격 소유자입니다.

Q. 병원 밖의 장기 요양시설 등에서도 의사의 지도 없이

혈압이나 혈당을 체크하는 것이 불법 의료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A. 2007년 7월 대법원 판례를 보면 '조산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산부인과를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진찰, 환부 소독, 처방전 발행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진료의 보조행위가 아닌 진료행위 자체로서 의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한 사례(대법원 2007.9.6. 선고 2006도2306 판결)가 있습니다. 이러면 의사의 지시나 위임 여부와 무관하게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사례의 경우도 아마 의사 선생님이 부재하였을 것이고 일정 업무를 위임받아 시행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의료법은 의료인이 만 명일 때 만들어진 법안으로, 의료인이 65만 명에 달하는 지금 분업화와 전문화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 없이 하는 모든 의료행위는 불법에 해당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장기 요양 시설에서 의사의 지도 없이 혈압 혈당을 체크하는 것도 불법이기에 더욱 간호사의 간호행위를 명확하게 할 간호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Q. 기존의 의료인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이번 간호법 제정을 통해 바로잡고자 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타 직렬의 의료인들은 간호사의 업무 영역 확대로 본인의 업무가 침탈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료인 업무 범위가 명확해질 경우 실제로 타 직렬 업무를 간호사가 흡수하나요?

A. 현재의 의료법은 간호직뿐 아니라 다양한 의료직의 다양한 역할에 대해 업무 범위를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현재의 의료법은 의료행위를 '의료인이 하는 의료, 조산, 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으로 정의'로 규정하고 있지만, 간호사의 역할을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간호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 활동'이라고 명시하면서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사의 오더 없이 하는 모든 것이 불법이 되는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음파 업무, 채혈 업무 이런 모든 것들을 의사 지시하에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방사선사, 임상병리사의 업무를 간호사가 침해하고 있는 것이 되고 있지요. PA 업무를 의사의 지시하에 시행하는 업무임에도 불법이 되는 것처럼 간호사가 하는 타 직렬 업무 침탈이라고 하시는 것은 의사의 지시하에 실시하는 많은 의료행위와 PA 업무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간호사가 환자의 위생을 위해 목욕을 해드리고, 침상을 정리하고, 환의를 갈아입히는 등 이런 것이 나이팅게일 때부터 행해온 간호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간호를 좀 더 과학적으로 행하기 위해 우리 대학에서도 4년 과정 동안 힘들게 이론과 실습을 공부

하는 것이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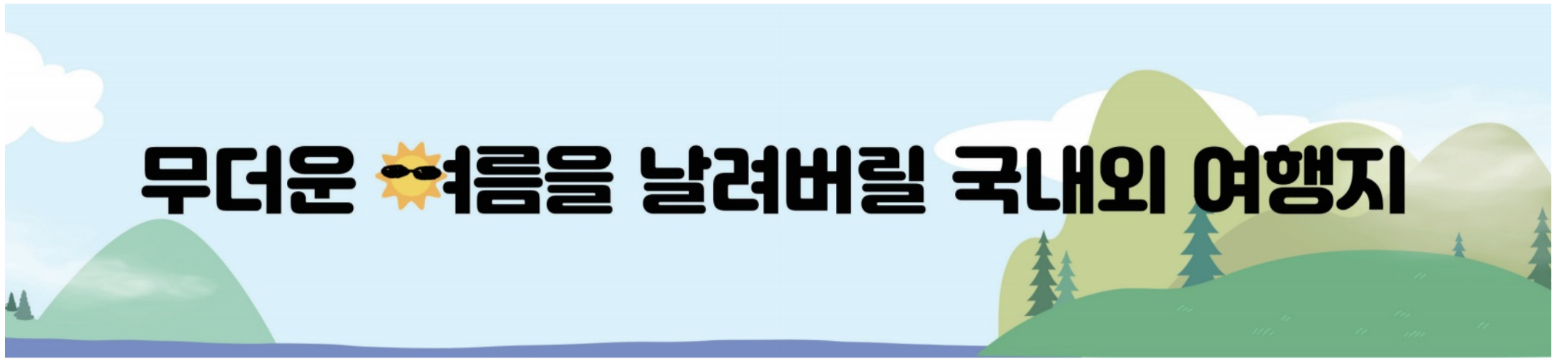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나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A. 현대의 의료시스템은 치료에서 예방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보건교사가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질병을 예방시키기 위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서 지역 의사가 없는 곳에서는 보건진료소에서 주민의 건강을 위해 애쓰고 계시고요. 군대에서는 어떤가요? 노인요양시설은 또 어떻고요. 이렇듯 산업 안전보건법, 노인복지법, 가정간호관련법, 학교보건법, 농어촌특별법, 국군사관학교설치법, 노인장기요양법으로 흩어져 있는 간호와 돌봄 관련 법안을 간호법 안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화, 세분화, 전문화되고 있는 간호사의 역할을 간호법이라는 새로운 그릇에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 (출처 - Pixabay)

기사 | 손민기 기자(minki70064@jj.ac.kr)
디자인 | 김지혜 기자(rwg1130@jj.ac.kr)



무더운 여름을 날려버릴 국내외 여행지

지난 1일부로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완화되어 엔데믹(풍토병화)이 시작되었다. 엔데믹 전환으로 여행객이 급증하였다. 완전한 일상 회복 후 맞는 여름휴가 여행이라 어디로 가야 하는지 고민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여름에 가면 좋은 국내 및 해외 여행지를 추천해보고자 한다.

▶ 국내 여행지

1. 강원도 삼척시

해외 휴양지 부럽지 않은 에메랄드빛 동해의 숨은 보석이다. 한국의 나폴리라 불리는 장호항을 비롯해 바다보다도 더 시원한 환선굴과 대금굴은 여름 피서지로 손색이 없다. 삼척시 부남해수욕장은 바다가 흰히 드러날 만큼 투명한 바다 풍경을 자랑한다. 삼척시의 명소 중 덕풍계곡이 있다. 이곳은 외진 곳이라 휴대전화도 잘 안 터지는 만큼 잠시나마 현실과 단절된 삶 속에서 힐링의 시간을 만끽할 수 있다.

2. 강원도 평창군

바다도 좋지만 푸른 하늘과 넓은 초원에서 시원한 휴가를 보내고 싶은 이들이라면 강원도 대관령 양떼목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기온으로 조금은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다. 또, 이곳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볼거리를 제공하여 새로운 경험을 만들고 갈 수 있다. 평창군 남쪽에 있는 청옥산에는 천상의 화원이라는 육백마지기가 있다. 여름에는 데이지가 평원을 덮어 인기가 있는 관광지로 꼽히고 있다. 이곳은 은하수를 조망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로 사진작가들에게도 인기 있는 곳이다.

3. 부산광역시

'여름휴가'하면 많이 떠오르는 곳으로, 해운대부터 광안리까지 이어지는 도심 속 휴양지다. 부산 대표 관광지인 해운대는 밤에 마린시티의 야경이 더해져 더욱 화려한 해변이 된다. 또 다른 명소인 감천문화마을은 사진 찍기에 좋으며, 전통시장 투어가 있을 만큼 먹거리가 가득하다.

4. 강원도 양양

양양 서피 비치는 서핑 천국으로 알려진 강원도 지역 중에서 국내 최초 서핑 전용 해변으로, 전국 각지 서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서핑 입문 강습부터 패들보드

코칭 프로그램까지 해변에서 즐길 수 있는 모든 액티비티를 경험할 수 있다. 서핑이나 보드를 타지 않더라도 해변 곳곳에 빈백존, 해먹존, 칠링존 등의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힐링하기에 좋은 여행지다. 일몰 후에는 신나는 음악과 함께 애프터 파티가 시작된다. 모래사장 위에 마련된 바에서 음악과 간단한 음식까지 즐길 수 있어 해외여행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5. 여수

국제 해양 관광의 중심인 여수는 3천여 그루의 동백나무로 가득 찬 붉은 섬 오동도는 웰빙 트래킹 코스를 갖추고 있다. 또, 해상 케이블카를 타면 마치 바다 위를 걷는 듯한 느낌이 들며 탁 트인 바다 전망을 감상할 수 있다. 노래 가사에도 나오는 낭만적이고 황홀한 여수 밤바다는 돌산대교와 음악분수가 함께 어우러져 멋진 야경을 선사한다. 시원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뿐만 아니라 공식 밥도둑인 게장백반과 돌산 갓김치, 갈치 조림 등 풍부한 먹거리까지 갖춘 인기 있는 관광지다.

6. 제주특별자치도

섬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관광자원인 제주도의 대표 여행지는 협재 해수욕장이다. 협재 해수욕장은 에메랄드빛 물빛이 인상적이다. 또, 바다 위 산책로인 용머리해안은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천혜의 자연경관으로 손꼽히고 있다. 섬지코지는 드라마 촬영지로 알려졌으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제주도는 한라봉, 흑돼지, 은갈치 등 다양한 대표 음식이 있다. 4월부터 8월까지 제주도 서귀포시에 위치한 수목원 마노르블랑에서 수국축제가 열린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빨리 개화하고 있으며, 섬과 바다가 보이는 조망과 함께 수국을 볼 수 있는 명소이다.

▶ 해외 여행지

1. 대만 가오슝

대만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한 곳인 가오슝은 관광, 자연, 쇼핑 등 다양한 여행을 즐기기에 좋은 대만 여행지다. 한국에서 약 3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단거리 해외 여행지로, 부모님을 동반한 가족 여행자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곳이다. 가오슝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관광 명소를 탐방하기에 좋다. 가오슝 근교 여행지인 타이둥에서는 매년 6월부터 8월까지 열기구 축제가 열려 멋진 광경을 감상할 수 있다.

2. 일본 삿포로

삿포로는 사계절 언제 방문해도 다양한 축제와 볼거리, 놀거리가 있는 일본 여행지다. 2시간 반 정도의 짧은 비행시간의 해외 여행지라 짧은 휴가를 이용하여 가기에 좋다. 7월의 삿포로는 퍼시픽 뮤직 페스티벌과 삿포로 여름 축제가 열려 더욱 풍성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다. 그 외에도 눈축제, 라이트 축제, 라일락 축제 등이 1년 내내 펼쳐지는 곳이다.

3. 호주 퍼스

해외에서도 산, 바다, 사막까지 광활한 자연을 누리고 싶다면 즐기기에 좋은 여행지다. 퍼스 근교에는 자연경관을 만끽할 수 있는 매력적인 명소들이 많다. 인생샷을 찍기 좋은 항구도시, 모래사막이 펼쳐지는 란셀린과 은하수 맛집인 피너클스 사막, 해수욕을 즐기기에 좋은 코트슬로우 비치와 물랄루 비치, 마지막으로 제일 행복한 동물로 알려진 퀴카를 만나볼 수 있는 로트네스트 섬 등 다양한 명소를 가볼 수 있는 곳이다.

4. 스페인 산세바스티안

스페인인 5월부터 8월 중에서 6월에 가장 방문하기 좋은 나라다. 7, 8월 극성수기 전 비교적 한적하게 보내기 좋으며 날씨가 쾌적한 시기라 야외 활동을 즐기기에 좋다. 특히 서핑을 좋아하는 여행객이라면 서핑 슈트를 입지 않아도 될 만큼 따뜻한 날씨에 근사한 파도를 만날 수 있는 해변이 많아서 안성맞춤인 여행지다. 또, 산세바스티안에는 작은 도시지만 2023년 기준 미술관 레스토랑이 34곳이 있을 만큼 '미식의 도시'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곳에서만 먹을 수 있는 다양한 먹거리를 경험할 수 있다.

5.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코타키나발루는 세계 3대 일몰 스팟인 곳으로 꼽히고 있다. 5시간의 비행시간으로 이동할 수 있는 여행지로, 짧은 여름 휴가에 다녀오기에도 부족함이 없다. 이곳은 아름다운 일몰 감상뿐만 아니라 수영장을 보유한 리조트 호텔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어 풍성한 호캉스를 즐길 수 있으며, 다양한 섬 투어를 할 수 있다. 또, 밤에는 야시장과 반딧불 투어 등을 할 수 있어 지루할 틈 없이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여행지다.

기사 | 최혜림 기자(chr9460@jj.ac.kr)
디자인 | 조희주 기자(zlx1020@jj.ac.kr)

독자투고

미리 지어진 전쟁기념물

원지호가 조형한 기념비 '미리 지어진 전쟁기념물'은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적 시각을 던진다. 해당 기념비는 여타의 기념비와는 차별화된다. 우뚝 솟은 비석이나 동상의 형태인 기념비 일반과 달리 이것은 땅바닥에 누워 있으며 오벨리스크가 아닌 묘지나 영안실의 형태를 취한다. 우리 외벽을 통해 내부의 골조가 흰히 드러나 초라하며, 바닥에는 풀이 무성하게 자라 관조자를 기만하는 포스트모던 성향의 예술 작품처럼 보이게까지 한다. 놀랍게도 이 조형물은 과거가 아닌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회고'하는 기념비로, 미래의 전사자(戰死者)를 위해 마련되었던 묘지를 표방한다.

근대주의적 혹은 진보주의적 수사에서 과거는 미래에 의해 정립되고 배치되는 객체로서 등장했다. 이는 과거의 형상이 미래의 목적에 의해 주조(鑄造)되었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 전쟁기념물은 그러한 목적론적 시간관을 뒤집는다. 기념비의 전통적인 유행에서 과거는 주권에 봉사하는 것 혹은 선택적으로 기억되어야만 하는 것이라는 종속자의 입장에 만족해야만

했다. 하지만 초라하게 세워진, 아니 '눅혀진' 이 기념비는 억울하게 희생당한 과거를 거꾸로 미래에 투영시킨다. 이로써 과거는 잠시 지나칠 환승장이라는 전략한 위치에서 벗어나 본연의 자리로 돌아갈 복권의 가능성을 부여 받는다.

독일의 철학자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은 자신의 철학적 유연장인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의 14번째 테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유행이 무엇이 현실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검색하는-그것이 아무리 지난 간 일의 덩굴 속에 있더라도-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이를테면 과거를 향해 내딛는 호랑이의 도약이다’

이는 반대로 이렇게 말해질 수 있다. ‘역사의 희생자는 무엇이 현실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검색하는-그것이 아무리 흘러간 미래의 안갯속에 있더라도-뛰어난 예지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이를테면 미래를 향해 내딛는 호랑이의 도약이다’

투고: 전경석 학우(역사문화콘텐츠18)

시위운동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다.



당신은 시위운동을 하는 조합의 한 일원이다.
어느 거리에서 대중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당신은 행동으로 보여줄 것인가, 아니면 목소리로 들려줄 것인가.
이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는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진 자유이자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번 환경 시위들은 그들이 기본적인 시민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들의 주장이 부족하거나 과격하다고 여겨지더라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표현하는 것은 자유인의 권리이다.

이번 시위들은 과격한 방법으로 환경이라는 주제를 알렸다. 시위는 본질적으로 대중에게 시위 주체의 주장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시선과는 어긋나는 방식을 사용하여 그들의 주장을 알리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들의 시위가 법에 어긋나는 경우 처벌할 수 있지만, 그들의 주장 그 자체를 독립적으로 판단할 시야를 가져야 한다.

오랜 기간 동안 여러 환경단체나 과학자들은 환경에 대한 여러 우려를 해왔고, 우리는 이런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예술보다 중요한지 재고해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최근 로마에서 발생한 트레비 분수 시위는 인류의 문화유산을 훼손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려는 목적으로 진행된 시위이다. 이 시위는 환경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 트레비 분수에 검은 물감을 뿌렸다. 이러한 시위는 사회적 규범에 어긋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들을 단순히 이념에 매몰된 사람으로 보지 말고 그들의 주장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2022년부터 이와 같은 문화유산 훼손 시위가 증가하고 있었지만 이에 대한 의견 표명이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런 현실을 볼 때 그들이 과격한 시위를 진행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이번 시위는 환경단체들이 우리에게 다른 시야를 제시해 준 것으로 간주할 수 있고, 우리는 같은 시민으로서 그들의 주장에 대한 관심과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번 시위는 독특한 방식의 시위 사례 중 하나일 뿐이다. 단식 시위나 삭발 시위와 같이 개인적인 결의를 보여주는 방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기 위해 알래스카에서 수백 명의 예술가가 알몸으로 사진을 찍는 등 시위의 다양한 사례가 있다. 우리 선조들은 일제에 맞서 무장 독립운동을 했고, 군사정권 시기에는 시민군까지 결성하여 정권에 저항하기도 했다. 독재에 맞서기 위해 외국의 한 스님은 스스로 몸에 불을 붙이는 시위도 진행했고,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동법을 손에 쥐고 스스로 불에 탄 시위도 있었다. 이러한 다양한 시위 행위들은 폭력이 있어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받아들여지는데, 트레비 분수 시위에만 다른 기준을 갖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는 최대한 관용의 시선으로 시위를 바라보아야 한다

기사 | 김하람 기자(202015030@jj.ac.kr)

목적이 분명한 목소리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시위는 개인 혹은 단체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한 운동으로, 모든 국민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가진다.

시위의 목적은 불평등, 부정부패, 정치적 자유, 기후 변화 등 다양하다. 시위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언론을 활용하기도 한다. 언론의 도움이 없으면 피시위 집단은 시위가 있다는 모르고, 시위 집단을 무시하게 되기 때문이다. 시위 집단은 시위의 목적을 피시위 집단에게 알리고 관심을 끌기 위해 불법적인 시위를 하거나, 폭력을 통해 절박함을 강조하기도 한다. 시위는 피시위 집단이나 사회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시위 대상자에게 개인의 혹은 단체의 의견을 관철하고,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일 뿐이다. 시민이 가진 기본적인 권리를 등에 업고 절제 없이 행하는 시위는 목적을 상실하고 남에게 피해만 끼칠 수 있다.

지난 5월 이탈리아에서 기후 위기 대응을 촉구 시위하는 환경단체 '울티마 제네라치오네'가 유명 관광지를 돌아다니며 기습 먹물 테러 시위를 일으켰다. 그중 하나가 로마의 명물 트레비 분수에 먹물을 투척하여 분수를 검게 물들였다. 이 시위대는 '우리는 화석(연료)에 돈을 내지 않겠다'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트레비 분수에 들어가 식물성 먹물을 부으며, "우리나라가 죽어가고 있다"라고 외치며 시위를 이어 나갔다. 경찰들은 이 시위대를 끌고 나와 시위 물품을 압수했고, 관광객들은 욕설과 야유를 퍼부었지만, 이들은 이탈리아 북부의 홍수 피해를 계기로 기후 위기 심각성을 알리려고 이번 시위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로마시장은 시위에 쓰인 먹물이 분수에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환경단체의 주장에 대해 "30만 톤의 물을 비우고 다시 채워야 한다. 이것 또한 환경 낭비"라고 일침을 날리기도 했다.

불평등, 부정부패, 기후 변화, 정치적 자유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개인이나 단체의 목소리를 내고, 변화를 촉구하는 것은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움직임이 분명하다.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사회가 변화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다수를 위한 사회가 아니라 소수를 포용할 수 있는 사회로 향하는 변화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공질서를 무시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변화를 촉구하는 건 또 다른 불평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 개인 혹은 단체의 목소리에 관심을 끌기 위해 관광지를 파괴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행동은 오히려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 뿐이다.

사회를 향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하다. 더욱이 소수가 다수를 향해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나 사회적 약자가 강자를 향해 목소리를 내는 상황에선 더 큰 용기와 위협을 감수해야 한다. 위협을 감수해서라도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다수가 사회의 전부가 아니라 불특정의 소수도 함께 살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소수의 존재를 알리고, 소수도 공존할 수 있는 사회로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수에게 소수의 목소리를 들려주기 위해, 절박함을 드러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내딛는 걸음과 목소리가 누군가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환경을 파괴하고, 폭력에 폭력으로 대응하게 만든다면, 목적이 분명한 목소리를 내는 시위가 될 수 있을까?



기사 | 진주현 기자(jjh8222@jj.ac.kr)
디자인 | 조희주 기자(zlx1020@jj.ac.kr)

2023년 JJ 청소년 캠프 개최



2023년 JJ 청소년 캠프

하나님 안에서의 꿈과 비전

세상과 멀어지기! (중독에서 벗어나기)

GUEST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한일서 5장 14절-



마커스워십
(인도: 소진영간사)

일시: 7월 24일(월)~ 7월 26일(수)
장소: 전주대학교 Superstar홀 (학생회관 3층)

대상: 중·고등부 학생
참가비: 7만 5천원 (미자립 교역 30% 할인)
강의: 중·고등학생 중독 예방 교육/ 인플루언서와의 만남

주최: 전주대학교

주관: 선교봉사처/신학과경배찬양학과

후원: 전북CBS, CIS, 전북방송, 전주대방송

Least Worship

문의전화(전주대학교 선교지원실)
063) 220-2103

063) 220-3148

오는 7월 24일(월)부터, 7월 26일(수)까지 학생회관 3층 슈퍼스타홀에서 제1회 2023년 JJ 청소년 캠프를 진행한다. 전주대학교는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기독교 명문 사학으로 영성, 인성, 지성의 전인교육을 바탕으로 창의적 실용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비전을 두고 있다.

처음 열리는 이 캠프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되어있던 전북 지역 기독교 청소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자신들의 꿈과 비전을 위해 고민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번 캠프는 “하나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주제로 진행되며, 선교봉사처와 신학과경배찬양학과가 주관하여 진행한다. 이진호 목사(동현교회 담임목사·전주대학교 캠퍼스 복음화 사역 담당 교수), 박희정 목사(온누리교회 담임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김래경 교수, 박길영 전도사, 나도움 목사, 양희정(유튜브 “양양피아노”) 강사와 함께 중독에서 벗어나는 중독 특강, 위로를 줄 수 있는 위로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캠프 신청 관련 문의는 선교지원실(063-220-2655, 3148)로 하면 된다.

| 선교지원실오여찬(ssd5206@jj.ac.kr)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시 19:1~4). 하늘에는 하늘의 언어가 있다. 하늘은 그 언어를 날마다 밤마다 쏟아붓는다. 그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르나 사람들은 듣지 못한다. 소음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 남녘 바다의 기운을 담은 여수 금오도에는 해안 기암절벽을 따라 ‘비렁길’이 이어진다. ‘비렁’은 ‘벼랑’의 여수 사투리이다. ‘비렁길’은 섬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 오가던 오솔길이었다. 금방이라도 떨어져 내릴 것 같은 아찔한 절벽 밑으로 파도가 부서진다. 깎아지른 해안 벼랑을 따라 이어지는 절경에 저절로 숨이 차고 가슴이 떨린다. 티끌 하나 없는 맑은 하늘과 시원한 바람, 어느새 뜨거운 6월의 햇살이지만 발걸음은 가볍다. 금오도(金鰲島)는 때 묻지 않은 자연의 신비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봄, 여름, 가을은 물론 한겨울에도 색을 잃지 않은 동백나무와 소나무와 전나무와 같은 아름답디 수목들이 울창한 숲을 이루며 초록빛을 쏟아 낸다. 태고의 침묵과 고독이 머무는 신비로운 숲을 나서면 옥빛 빛깔 고운 바다가 눈부시다. ‘비렁길’은 벼랑의 지형에 따라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오름과 다리가 풀려 휘청거리는 내림이 이어진다. 그렇지만 오름은 숲이 있어 숲대로, 내림은 바다가 있어 바다대로 생생한 생명의 기운을 내뿜는다. 그래서 섬에서 마시는 공기는 늘 신선하다. 비취빛 바다를 내려다보며 섬을 에두른 ‘비렁길’에서 만나는 바람은 편백나무 숲을 지나면서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하다. 이 신선한 바람을 들이마시면 그동안 깊이 잠들어 있던 몸이 깨어난다. 몸이 깨어나면서 시들했던 마음에 생기가 돌고 잠자고 있던 영혼도 눈부시게 깨어난다.

▼ 하나님께서 연출하신 또 한편의 걸작 앞에서 귀로만 들어왔던 하나님을 눈으로 뵈는다(욥 42:5). 날마다 영혼을 깨워 잠잠히 ‘하늘의 언어’에 귀 기울였던 시편 기자처럼 ‘거듭남’을 곱씹는다. “여호와와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 하지 아니하는 자로다.”(시 24:3~4). 아멘.

장선철 교수 (前상담심리학과 교수)

예배안내

교직원 및 학생을 위한 중보기도 요청

전주대학교는 중보기도의 창구가 열려있다. 동료, 혹은 학생 중에 건강의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해 선교지원실에서는 함께 기도로 돕고 있다. 또한 교직원·학생들을 위한 신앙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한병수 목사(대학교회 205호), 이진호 목사(대학교회 206호)

기도문

임마누엘(Immanuel)의 하나님!

우주와 생명의 창조자이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늘 변함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주님께 기도드리오니,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소서.

매 순간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나간 것에 매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전주대학교를 위하여 새 꿈을 꾸게 하소서.

전주대학교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전주대학교를 한마음 한뜻으로 가꾸어, 전주대학교가 슈퍼스타를 키우는 기독교 명문사학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전주대학교에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 전주대학교가 전라북도의 인재 양성과 산업발전을 이끌어 가는 선도적인 임무를 수행하여, 도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대학이 되게 하소서.

전주대학교의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는 한 몸의

지체임을 깨달아,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전주대학교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우리로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전주대학교의 구성원들에게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전주대학교 발전을 위하여 청지기로써 맡은 바 임무를 다하게 하소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하셔서 힘과 용기를 주시고, 참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보호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슨 일은 하든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전주대학교의 부흥과 주님의 정하신 우리 대학의 목표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진배 총장

일상은 감사의 원천이다



한병수 목사

(선교신학대학원장/선교신학대학원 신학과 교수)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이는 주께서 나를 불드셨기 때문이라 (시3:5) 일상적인 잠과 깨어남을 주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에서 다윗은 천만인이 덤벼도 두려울 게 없다고 고백한다. 전쟁의 달인이 두려움을 꺾은 비법이니 굶은 밑줄을 그으려다. 높고 일어나는 것, 자고 깨어나는 것, 그게 인생이 굴러가는 쳇바퀴다. 높은 건 의지의 손아귀에 있다지만 일어나는 건 나의 결정을 벗어난다. 물론 지금은 자명종의 기운을 득하여 기상하는 시간의 임의적인 조절이 가능하다. 허나 외부의 인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본다면 일어나고 깨어나는 건 의식의 통제를 가뿐히 벗어난다. 자명종과 친하지 않은 시대에 다윗은 비록 수탉의 협조가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잠에서 깨어나는 건 결코 당연하지 않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기운이 주입한 기적이다. 시인은 잠들고 깨어나는 일상에서 주의 불드심을 감지한다. 섭리 감지력이 호흡의 차원까지 커버하고 있어서다. 이는 주의 불드심에 대한 맹목적인 억지가 아니라 하루하루 매순간마다 경

험하는 실재에 대한 고백이다. 주께서 우리의 누워 자고 깨는 일상에 머리 둘 곳이 있도록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고 싶다. 일상 밖에서의 특별한 일들에서 주님을 발견하는 것은 내면의 신앙이 아니라 대외적 생색용일 경우가 많다. 지혜가 거리에서 외치고 장터에서 목청을 돋우며 떠들썩한 네거리에서 소리치고 성문 어귀에서 말을 전한다는 지혜자의 언술에는 모든 일상에서 혹 더듬어 주님을 찾아 발견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의도가 엿보인다. 일상은 결코 삶의 지루한 반복이 아니라 가장 익숙한 형태로, 편한 파자마 차림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현장이다. 양장과 격식으로 꾸며진 만남보다 더 좋은 만남의 현장이다. 급작스런 만남, 혹은 특이한 세팅에서 이루어진 경험에서 이야기거리 발굴에 허덕이는 신앙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지양해야 한다. 일상의 은혜와 관련하여 나는 예수님의 다음과 같은 말씀이 좋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으리라”(눅21:18). 아침에 눈꺼풀을 들어 올리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그것을 닫으면서 하루를 마감하는 일상이 모두에게 반복된다. 너무도 평범한 일이어서 그것조차 불가능해지기 전까지는 지극히 일상적인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머리털 하나라도 새신 바 되었다는 말씀이 주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은 하나도 없다는 의미가 되어 가슴에 차오른다. 한 번도 파업하지 않고 뛰어 준 심장이 고맙고 지질 줄 모르고 산소를 흡입해 준 허파도 감사하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합당하고 마땅하다. 익숙한 일상에서 의식의 손을 떼는 건 반복의 나른함 때문이다. 일상의 반복성은 몸이 기억한다. 정신줄을 몽롱하게 놓아도 생존에 아무런 지장이 없어진다. 물론 성경을 읽다가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고 범사에 감사함이 마땅하단 뉘앙스와 마주치면, 얼른 거두었던 의식의 축수를 애써 일상으로 내뺀다. 그러나 이벤트성 감사 탐색도 잠깐이고 금세

쉬 무뎠다. 그러기를 일상처럼 반복한다. 일상에 대한 나의 이러한 무감각과 푸대접의 심각성은 다윗이 본문에서 보란듯이 고백하고 있다. 신앙의 가벼움은 주로 일상에서 들킨다. 다윗에게 침소는 무덤이요 잠은 죽음의 연습이다. 침소는 모든 무장이 해제되는 곳이고 잠은 정신의 모든 의식적인 활동의 중단이다. 죽음과 많이 닮았다. 방식은 달랐지만 다윗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었던 사람이다. 물론 그렇게도 많은 대적들의 시퍼런 칼날이 인격적도 없이 침소를 출입할지 모를 당시의 불안정한 상황에서 멀쩡하게 깨어나는 것이 다윗에게 기적이요 감격일 수도 있었겠다. 비록 그의 특수한 상황에서 비롯된 불가피한 깨달음일 수도 있겠으나 그것을 계기로 우리는 인간의 자고 깨어남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과 은혜를 깨닫는다. 사실 본문에서 읽어지는 하나님과 시인 사이의 관계는 내 안에 질투가 불끈거릴 정도로 친밀하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속 들었을 분이겠다 싶다.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맺어진 업무상의 관계성이 아니라 늘 반복되는 일상에서 감지되는 관계여서 더더욱 감미롭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험하는 다윗의 신앙은 이벤트가 아니었다. 밤마다 생명을 의탁하고 아침마다 부활에 준하는 감격으로 하나님을 인정했다. 일상의 기초가 튼튼한 신앙은 무너지지 않는다. 흰칠한 설교와 두터운 집필로 명성이 하늘까지 자자한 분들도 일상의 신앙적 지반이 부실하면 훨씬 더 치명적인 추락을 각오해야 한다. 일순간에 무너진다. 행한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저울추에 일상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우리의 솔직한 중심이 꾸며지지 않은 현상이기 때문이다. 아침이 밝았는데 심장이 여전히 박동하고 있다. 주께서 졸지도 않으시고 밤새 일하셨나 보다. 일상을 감사의 샘으로 여긴다면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이름 풀이, 성경 풀이

<쉽게 읽는 성경> ⑤



조재천 교수
(선교신학대학원)

사람의 이름은 당사자 개인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배경, 고향, 가정환경, 심지어 성격까지도 드러낼 수 있다. 또 이름은 시대와 문화의 일면을 반영하는 거울이다. 성서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에는 그들이 살았던 세상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이다. 하나의 예가 로마서 16장이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쓴 이 편지 마지막 부분에 35개 인명이 나온다. 그 중 27개는 로마 교인들의 이름이고 8개는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다. 첫 번째로 언급된 ‘뵈뵈’는 “빛나는, 똑똑한, 예언자적인”과 같은 뜻을 지닌 단어이다. 본래 그리스 신화에서 우라누스와 가이아의 자식들인 거인족 중 하나의 이름이다. 또, 그녀는 델피의 신탁과 연관되어 예언, 예지의 능력을 가진 여신적 존재이다. 따라서 여기 뵈뵈는 본래 유대인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다. ‘브리스가’와 ‘아굴라’(3절) 부부는 바울과 고린도에서 동역했다(행 19:23-31). ‘브리스가’는 라틴어

로 “고대의, 오래된”을 뜻하고 ‘아굴라’는 라틴어로 로마 황제의 상징인 독수리를 의미한다. 둘 다 유대인이었지만 선대로부터 디아스포라 생활을 하면서 라틴어식 이름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에베네도’(5절)는 “칭찬받을 만한”을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노예에게 흔히 붙여졌다. 그는 아시아에서 바울이 얻은 첫 회심자이다. ‘마리아’(6절)는 라틴어 이름 ‘마리우스’의 여성형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그보다는 성경 인물 ‘미리암’(출 15:20)을 음역한 전형적인 유대식 이름으로 보아야 한다. ‘안드로니고’(7절)는 “사람을 이기다” 또는 “승리하는 남자”라는 뜻의 그리스어 이름이다. 귀족이나 상류층 구성원에게 붙여지기도 했고 노예에게 붙여지기도 했다. 바울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묶어서 ‘내 친척’(그리스어 ‘칭계네스’)이라고 부르는데, 영역 성서들은 이 단어를 ‘fellow countrymen, compatriots’ 등으로 옮겼다. ‘헤로디온’(11절), ‘누기오’(21절)도 마찬가지로 바울의 동족 유대인이다. ‘유니아’는 “6월(라틴어 Iuni)에 태어난 사람”이란 뜻이다. ‘암블리아’(8절)는 “큰, 넓은, 풍족한”이란 뜻을 가진 단어에서 파생했고, 아우구스투스 시기부터 노예 이름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우르바노’(9절)의 어원 urbanus(“세련된, 도시출신의”)는 이 사람이 로마 출신임을 암시하고 흔히 노예를 지칭한다. ‘스다구’는 “옥수수의 씨눈”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단어에서 유래했다. 따라서 지중해 동부 그리스 지역 출신이다. 로마에서 나온 비문들에 노예의 이름으로 쓰였다. ‘아벨레’(10절)는 그리스 도리아 지방 달력 체계의 달 이름 중

하나이다. 그리스 출신으로 로마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일 것인데, 한 비문에 따르면 페르가몬 출신의 한 귀족이 이 이름으로 불렸다. ‘아리스도볼로’는 그리스인들 사이에 흔한 이름이다. “최선의 충고, 조언”이라는 뜻이고 헤롯 대왕의 손자 중 하나가 이 이름을 가졌다. 그는 로마에 보내져서 황실에서 성장했고 45년 쯤 사망할 때 그의 가족들은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부속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아리스도볼로의 권속’이 그 황실 부속 노예들을 가리킬 가능성이 있다. ‘헤로디온’(11절)도 헤롯 가문의 일원이자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또 바울은 ‘나깃수’의 가족의 안부를 묻는다. 나깃수 자신은 기독교인이 아닐 수 있다. 그 이름을 가진 해방노예가 클라우디우스 때 황실 행정에 관여하면서 큰 재산을 모았다는 기록이 있다. ‘드루배나’(12절)는 “세련되고 사치스럽게 지내다, 여성화하다”라는 그리스어 단어에서 파생했다. 같은 어근에서 파생한 ‘드루보사’는 리디아의 한 비문에서 귀족 여성의 이름으로 언급되었다. 둘은 자매일 수도 있다. 반면 ‘버시’는 페르시아 출신임을 암시하고, 전형적으로 노예에게 붙여졌던 이름이다. ‘루포’(13절)는 “붉은 머리”를 뜻하는 라틴어에서 나왔고, 노예와 자유민 모두에게 붙여진 이름이었다. 구레네사람 시몬의 아들 중 하나도 루포였다(막 15:21). ‘아순그리도’(14절)는 “비교할 수 없는”이라는 뜻의 그리스어 이름으로 노예에 어울린다. ‘블레곤’은 그리스 신화에서 태양신 헬리오스가 부리는 네 마리의 말 중 하나의 이름이다. 그리스식 이름이지만, 개를 그 이름으로 부르기도 했으므로 노예에게 붙여지기

심상이었을 것이다. ‘허메’는(14절) 뒤이어 나오는 ‘허마’와 더불어 그리스 신 헤르메스를 따서 지은 이름인데, 로마에서 발굴된 비문에서 자주 노예들 이름으로 나타난다. ‘바드로바’는 “아버지의 생명”이라는 뜻이고, ‘빌롤로고’(15절)는 “말을 사랑하는 자,” 즉 말하기를 좋아한다는 의미인데, 비문 증거로 볼 때 흔한 노예의 이름이었으며 하급 관리의 이름으로도 등장한다. ‘올리아’는 빌롤로고와 부부일 수 있다. 이 이름은 매우 흔한 라틴어식 이름으로, 그녀가 카이사르 혹은 아우구스투스 재임기에 태어났음을 암시한다. 이 역시 노예 이름으로도 사용될 수 있었다. ‘네레오’는 그리스 신화에서 바다신 폰투스와 지구신 가이아 사이에 태어나 에게해에 거주했다고 전해지는 신이다. 전형적인 그리스 이름이며, 비문 증거로 볼 때 노예 이름일 가능성이 높다. ‘올림바’는 올림피아와 관련된 남자 인명으로 그리스 출신일 것이다. “올림피아의 선물”의 줄임말로써 노예 이름으로 어울린다. 이상 27개 이름을 놓고 볼 때 로마 교회는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었을까? 그중 많은 이름은, 그 이름을 지닌 사람이 노예임을 드러낸다. 또 로마 토박이보다는 그리스 지역에서 온 ‘외지인’들의 이름이 더 많다. 여자 이름이 남자 이름보다 조금 더 많고, 귀족이나 재력가임을 나타내는 이름은 드물었다. 로마의 기독교 공동체와 바울의 동역자들은 사회의 ‘비주류’들이 많았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다.

NEWS 기자칼럼

방황하는 성장통



진주현 기자
(jjh8222@jj.ac.kr)

사회의 마지막 울타리인 대학교에서의 4년이 끝나면 우리 더 큰 사회로 발을 내딛어야 한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대학교에서의 4년 동안 우리 끊임없이 방황하게 된다. 4년이 지나도 그 방향이 끝나지 않겠지만, 우리는 열심히 방황한다. 4년 동안 배운 전공 지식, 혹은 새로운 진로를 가지고 스스로 책임져야만 하는 사회로 나가야 한다. 그렇기에 대학교에서의 4년은 충분히 방황해야 하는 시간이어야 한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인지, 나와 맞는 사람은 누구인지 등 나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많은 것을 시도하고 실패하고 성공하며 나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결국, 나를 제대로 알아야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방향이 어디인지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전하지 않으면 성공도 실패도 없다. 부딪혀보지 않으면 나에게 맞는 길인지 맞지 않는 길인지 알 수 없다. 좌절해보지 않으면 극복해내는 방법을 알 수 없고, 성공해보지 않으면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대학교는 성공도 해보고 좌절도 해보고,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친구를 만나 웃음꽃을 피우고, 정반대인 친구를 만나 서로 발맞춰 걸어가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곳이기도 하며, 맞지 않는 부분 때문에 서로를 등지기도 하는 곳이다.

대학교는 다양한 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숙해지는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곳이다. 다양한 사람을 만나 내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알아가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책임감이 무엇인지 배우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깨닫게 된다. 그 과정에서 어리숙했던 미성년의 우리가 스스로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 성년으로 성장하게 된다.

대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우리가 마주할 사회는 생각보다 무뎠고 차가울 수도 있다. 나의 모든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하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어울릴 줄도 알아야 한다. 하기 싫은 일을 내색하지 않고 해낼 수도 있어야 하고, 때로는 감정을 숨겨야 하는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다.

대학교를 벗어나며 마주하는 자유와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 지어지는 책임감은 점점 무거워질 것이다. 그 책임감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우리는 몸도 마음도 성숙해지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 시간이 바로 대학교에서의 4년이라고 생각한다. 20살이 되자마자 바로 사회로 발을 디는 사람들도 분명 존재하고, 그들의 방법이 옳지 않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학교에서의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충분한 성장통을 통해 성장하는 나를 느낄 수 있다.

방황하고 좌절하는 성장통을 겪을 동안 우리 충분히 많은 실수와 실패를 겪으며 좌절을 이겨낼 힘과 방법을 찾고, 성공으로 인한 성취감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여유를 배우며 더 큰 사회로 나아가갈 준비를 한다.

4년간 배운 전공 지식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우리 실패한 4년을 보낸 것이 아니다. 4년이라는 시간은 그 시간을 다양한 사람과 만나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하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 4년이라는 시간은 미성년의 우리가 성년으로 성장하며 성년이란 무엇인지 스스로 정의를 내리는 시간이다. 그 속에서 겪는 모든 성장통의 방향은 우리 좌절하고 절망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과정인 셈이다.

모두가 각기 다른 성장통을 겪으며 대학교에서의 4년을 보내고, 더 큰 사회로 나가 스스로 책임지며 살아갈 것이다. 성장통의 기간과 고통은 저마다 다르겠지만, 우리 그런데도 방황과 좌절의 성장통을 이겨낸 미성년이 아닌 성년으로 성장할 것이다. 지금껏 잘 이겨 내왔듯이.

NEWS 기자칼럼

학생자치기구, 학생 구성원의 수준을 보여주는 척도



손민기 기자
(minki70064@jj.ac.kr)

매년 저조해지는 학생자치기구에 대한 관심 속에 2023학년도 학생자치기구장 선거는 그 바닥을 보여줬다. 발표된 공약들은 매년 보던 것들이고, 경선은 고사하고 입후보하지 않은 단위도 많았기에 학우들의 관심이 더욱 줄어들었다. 특히 2023학년도 선거는 3일간 치러지며 '역대급 선거'가 됐다. 타 대학은 연장 선거를 진행한다 해도 하루 정도 진행하고 당선된 후보가 없다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하지만 우리 대학은 어떻게든 학생 대표자를 만들어 내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시행세칙을 통해 개표 가능 투표율을 과반이 아닌 40%만 넘겨도 개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2022학년도 선거 당시에는 선거시행세칙을 개정해 개표 가능 투표율을 35%로 조정해 간신히 개표할 수 있었다. 타 대학 대부분이 개표 가능 투표율을 과반(50%)으로 정하고 있는 것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우리 대학도 개표 가능 투표율을 과반으로 높여 진정한 민주주의 선거를 확립해야 할 때다.

또한 우리의 이익을 위해 학생자치기구 활동에 적극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대학이라는 작은 사회 속에서 학생자치기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정치인' 같은 존재다. 정치인과 다른 점이라면 학생자치기구장은 재선을 노리지 않고 1년 활동 후 깔끔히 활동을 마무리한다. 덕분에 재선을 위한 선심성 공약이 남발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 번밖에 못 하는 학생자치기구장 당선을 위해 포퓰리즘 공약이나 매년 똑같이 등장하는 '돌려막기 공약'이 수두룩하게 등장한다. 매년 등장하는 '학생자치기구 SNS 소통 채널 개설'이나 '복지 물품 확대', '사물함 대여' 공약은 이제 지켜줄 정도다. 심지어 공약으로 '학생회비 사용 내역 공개'를 내세우는 후보도 있었다. 학생자치기구는 학생회비를 이용해 각종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사용내역 공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공약을 억지로 채우기 위해 이런 억지 공약까지 공개하는 와중에 그저 '단일후보니까', '학생회 없으면 간식 이벤트도 못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계속 뽑아주는 사람이 존재한다. 당연히 행사 주최와 업체 제휴 등 각종 복지 사업도 학생자치기구가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축제와 행사 주최, 농촌 봉사 활동 같은 문화 사업에 다른 활동이 저조하거나 조명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선택경비로 학생회비 10,000원과 학회비 11,000원을 낼 수 있다. 합치면 21,000원인데, 이 돈이면 넷플릭스 프리미엄 요금(17,500원)을 한 달 이용할 수 있다. 우리는 선택경비를 내면 넷플릭스만큼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 행사와 축제에 만족하는 사람이라면 혜택을 충분히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학우가 혜택을 받기는 어렵다. 이렇다 보니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은 학생회비 납부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문제는 이렇게 느끼는 학우가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학생자치기구가 집중해야 할 본질은 '학생 권의 증진'이라는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우리는 과도기에 놓여있다. 지방대학의 통폐합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게 됐다. 이러한 상황 속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가 감수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학교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는 든든한 학생자치기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선거 결과를 보자면 학생자치기구장 선거에 개나 소를 입 후보시켜도 단일 후보라면 당선은 물론 득표율 90%를 거의 보장받을 수 있다. 그만큼 우리 의식 속에 '학생회장이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지'라는 생각이 만연하다는 뜻이다. 이러한 생각이 발전하는 학생자치기구를 만들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매너리즘에 빠진 학생자치기구를 위해서라도 학우들의 관심과 더불어 후보자를 적극적으로 검증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공약과 후보자 검증 없이 무턱대고 투표하는 현상이 지속된다면 자질 없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입후보하는 상황까지 올 것이다. '현실은 바쁘게 공약을 일일이 찾아볼 시간이 어디에 있나?'라는 의문이 들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선거 당일 투표 1시간 전에 공약을 훑어보고 잠시 고민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잠깐의 고민이 우리 대학의 1년을 결정지을 것이다.

확장현실(eXtended Reality, XR) 기술을 활용한 간호 시뮬레이션 교육



김미희 교수
(간호학과)

간호학은 실무중심 학문으로 이론교육에서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병원에서 수행되는 임상실습은 이론과 실제를 통합하여 간호 상황에 초점을 맞춘 문제해결능력과 관련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학습과정이다. 간호교육에서 임상실습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에서 환자 안전 및 권리 강화 등으로 인해 간호대학생들이 대상자에게 직접간호를 수행하는 것이 제한되어 주로 관찰 위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실습 기관 부족과 한정된 임상실습 교육 인력 등으로 인해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뮬레이션 실습은 이러한 임상실습을 보완하기 위해 역동적인 임상 상황이 반영된 시나리오와 환경을 기반으로 고성능 환자 모형(High-Fidelity Simulator, HFS) 또는 표준화 환자(Standard Patient, SP)를 활용하여 팀 기반 학습으로 교육에 활용

되어 왔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학습 목표와 성과에 적합한 임상적 추론과정을 통해 메타인지적 기술을 습득하여 궁극적으로는 비판적 사고능력에 따른 문제해결 능력, 임상 판단력, 의사소통 능력, 자기 효능감 등이 향상된다. 또한, 학생들에게 학습 과정 동안의 실수가 허용되는 안전하게 설계된 환경에서 반복적인 훈련으로 실수를 개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역량을 최대한 향상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학생들의 시뮬레이션 활동이 모니터링된 내용을 바탕으로 학습 후 평가 과정에서 개별 학생들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개인화된 피드백을 제공하여 학생 성장을 돕는 부가적인 학습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간호교육에서 충분한 시뮬레이션 공간과 고가의 시뮬레이션 관련 장비(고성능 환자 모형, 녹화 및 모니터링 시스템, 디브리핑 시설 등)와 같은 시뮬레이션 환경 구축과 시뮬레이션 운영을 위한 인력의 제한으로 성공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시뮬레이션 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고성능 환자 모형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교육과 함께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시뮬레이션 교육에서는 학습자들에게 현실감 있는 교육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 혼합현실(Mixed Reality, MR)을 포괄하는 확장현실

(eXtended Reality, XR) 기술까지 활용되고 있다. 확장현실은 사용자가 가상 요소와 현실 세계를 통합하여 학습자에게 현실감과 상호작용을 제공하여 실제와 거의 흡사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몰입감을 극대화하여 교육을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간호교육에서도 확장현실을 활용하여 임상현장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고난도 간호 제공이 필요한 상황을 교육하고, 훈련함으로써 간호사의 전문성 향상과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간호 시뮬레이션 교육에서 확장현실 기술은 비용 효율성과 현실적인 측면에서 고성능 환자 모형만을 활용하는 시뮬레이션과 함께 각 유형의 장점을 혼합함으로써 효과적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확장현실 기술을 활용한 간호 시뮬레이션 교육은 새로운 가능성과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열어주어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능력, 문제해결 능력 및 간호 역량을 향상하고, 의료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잠재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간호 시뮬레이션 교육에서 확장현실을 활용한 교육 콘텐츠의 개발과 활용 방향을 결정하여 고성능 환자 모형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교육과 확장현실기반 시뮬레이션 교육을 조화롭게 운영하는 하이브리드 교육전략과 교육의 효과를 확인하는 지속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 설

3개 대학 통합 이후를 준비해야

지난 5월 30일, 전주 시내에 위치한 우리 대학교 예수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가 통합을 선언했다. 우리 대학을 비롯한 3개 대학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혁신을 선도하는 산학협력 허브 구축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교육 플랫폼 구축을 위해 대학 혁신을 통한 통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단기적으로 볼 때 이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글로벌대학 30> 사업 선정을 대비한 초석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설령 사업에 선정되지 못하더라도 통합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3개 대학의 통합은 기정사실화되었다. 지난 20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올해 <글로벌대학 30> 예비지정 결과 우리 대학이 아쉽게 탈락하였지만 내년에 재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기 때문에 3개 대학 통합도 예정된 수순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다른 개체 사이의 통합은 서로가 너무 가깝지도 않고 또 멀지도 않을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너무 가까우면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고, 또 너무 멀면 통합 자체가 어려운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 3개 대학의 통합은 여러모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만하다.

다른 무엇보다도 3개 대학이 '기독교 정신의 구현'이라는 동일한 건학 이념을 바탕으로 세워진 대학이라는 점은 뚜렷한 공통분모라고 할 수 있다. 단지 하나의 지붕 아래 모이는 '한 지붕 세 가족'이 아니라 '한 지붕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셈이다. 사업 선정만을 위한 명목상의 통합이 아니라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통합을 기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음으로 현재 3개 대학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특장점이 분명하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 대학은 4년제 종합 대학으로서 교육·학술·연구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성격의 단과대와 학과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큰 규모의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예수대학교는 4년제 간호인력 양성대학이다. 비록 규모는 크지 않지만 오랜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간호 계열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인정받고 있는 대학이다. 전주비전대학교는 2~4년제 지역특화 전문기술 인력 양성대학이다. 우수한 전문직업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실제 전국 단위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다. 이처럼 3개 대학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강점을 극대화한다면 향후 실질적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만하다.

현시점에서는 통합 선언이 이뤄졌을 뿐, 아직 장기적인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는 못한 상태이다. 앞으로 특성화 전략 수립, 경쟁력 강화 방안, 지역 사회 기여 방안을 담대하면서도 세밀하게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제 머지않아 우리 대학은 재학생 15,000명 규모의 지역거점 대형 기독교 사립대학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단순히 재학생의 숫자가 늘어나고 캠퍼스의 규모가 커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에 걸맞은 위상을 새롭게 재정립하기를 기대해본다.

NEWS 나의 좌우명(座右銘)

심지기위의(心之起爲意)



장현애 교수
(미래융합대학 기술경영공학과)

날씨는 후덥지근했고 장래 걱정이 한창인 20대 중반의 나는 경제잡지를 읽고 있었다. 어떤 내용 끝에 그 단어가 나왔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잡지에 나온 유명인의 좌우명을 보고 나는 마음먹었다. 나의 좌우명은 너다! 그렇게 외워서 저장된 좌우명은 아주 가끔 타인의 질문으로 소환되곤 했다. 지금처럼 말이다.

「심지기위의(心之起爲意, 마음이 일어나면 뜻이 세워진다.)」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만 가지의 생각을 한다. 당신은 어떤가? 살다 보면 어떤 생각들은 수도 없이 반복되거나 특별한 맥락 없이도 그 생각에 다다라 있다. 그렇게 그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마음 그릇에 가득 채워진다 [심지기, 心之起]. 마음 그릇이 가득 차면 그때부터 행동이 생각을 지배한다. 어느새 행동들은 일관되게 방향성을 가지고 반복되고 결국 습관이 된다.

“우리는 우리가 반복하는 것이 된다.” -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시나브로 「무언가」 되어져 있다.[위의, 爲意]. 이것이 본인이 해석한 심지기위의(心之起爲意)의 의미다.

습관을 위해 소요되는 평균시간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인터넷에 출처가 명확한 답이 없어 궁금한 마음에 Bard(Google AI)에게 물었다. 대답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21일' 인공지능다운 답변이다. 본인의 경우는 꽤 오래 걸리는 편이다. 근력운동을 생활화하기까지, 헬스장 1년 정기권을 고스란히 새것으로 보내어 드리고 이어 3개월 정기권 2번

정도를 새것과 유사한 상태로 보내어 드린 이후에나 운동 습관이 생겼다. 나쁜 습관과 좋은 습관을 비교해 볼 때 가치 있고 좋은 습관들은 쉽사리 얻어지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정돈된 마음가짐으로 일어나는 생각들의 방향성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긍정적이지 못한 것이라면 순화하고, 발전적 방향이라면 소중히 다루어 습관이 되기까지 스스로에게 다양한 방식의 기회를 좌절없이 제공하는 무한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서 설명한 '심지기위의'를 가만히 들여다 보면, 좋은 마음과 좋은 습관에 관한 것이 아니다. 마음에는 뭐든 담길 수 있고, 좋거나 혹은 나쁜 습관을 거쳐 같은 결의 뜻이 세워진다는 해석이다. 지금 당신의 생각들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때마다.

전주대신문 1965년 5월 15일 창간

(우 5506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신문방송국 운영실 063) 220-2441
대학신문사 편집실 063) 220-2442

발행인 | 박진배
주 간 | 백진우
편집장 | 박헌빈

편집: 대학신문사 편집부
인쇄: (주)다울
인터넷신문: news.jj.ac.kr

Raising the anchor of bold and innovative approaches, our aim is to foster shared growth and mutually beneficial development among universities, regions, and industries

Under the project named "Glocal University 30," Jeonju University, Jesus University, and Jeonju Vision University have decided to join forces

On this Tuesday, May 30, prior to the application deadline (~5:31) for the Ministry of Education's preliminary designation for the "Glocal University 30" project, the presidents of the three universities held a press conference. The purpose of the conference was to promote the establishment of a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hub that leads regional innovation and the creation of an education platform to secure global competitiveness. By doing so, we aim to showcase our commitment to embark on a sustainable journey towards establishing a remarkable glocal university through bold innovation.

These three universities were founded with the mission of realizing the Christian spirit, and they are considered innovative in their decision to merge Shindonga Academy and Jesus University into one corporation. Furthermore, the joint application for a glocal university holds significant meaning, as it unites a 4-year comprehensive private university, a 4-year college, and a 2-3 year college. The resulting synergy is expected to be tremendous, which is why this initiative is being highly evaluated.

Presently, our university has an admission quota of 2,512 undergraduate students and 10,528 enrolled students. Jesus University has an admission quota of 115 undergraduate students and 493 enrolled students, while Jeonju Vision University has an admission quota of 1,074 undergraduate students and 3,061 enrolled students. With the combined admission quotas, a large Christian private university will be established, boasting an immense regional presence and accommodating 3,701 undergraduate students with a total enrollment of 14,082.

Following the application for the glocal university designation, our university has announced its commitment to systematically establish and promote a specialization strategy that aligns with the principles of a glocal university. Simultaneously, efforts will be made to maximize the brand and competitiveness of the three universities through synergistic collaboration.

The presidents of each university stated, "By leveraging the specialized capabilities and competitiveness possessed by each institution, we aspire to develop into a truly prestigious glocal university, unmatched in status and competitiveness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Regarding the detailed measures to promote the glocal university, our focus will be on: 1) expanding the identity and strengths of the three universities; 2) minimizing the gap between education and industry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flexible academic structure and the pursuit of bold and innovative approaches; 3) nursing as the primary field of specialization for the glocal university, in addition to cultivating healthcare professionals and industry experts, 4) implementing various programs in collaboration with local governments to address societal challenges, and 5) nurturing exceptional talent for the region based on Christian ethics and character education.

The purpose behind designating a glocal university is to enable the university to nurture customized talents required by local industries, while simultaneously enhancing the region's appeal as a desirable place to live. This can be achieved by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local industries and improving the economy through the integration of outstanding university students into the local workforce and community.

Jeonju University, Jesus University, and Jeonju Vision University have jointly applied for the "Glocal University 30" project. They are dedicated to utilizing their collective capabilities to contribute to the industrial and social development of Jeollabuk-do, guided by their Christian identity.

| Article Public Relations Office for External Cooperation
| Editor & translated by reporter Park Heon-bin(hans8150@jj.ac.kr)

Held a meeting to collect student opinions to promote the 'Glocal University 30' initiative

On May 12, our university conducted a 'Glocal University 30 Promotion' meeting in the small conference room of the main university building. Attendees included the student council president, college student council president, and key officials such as President Park Jin-bae, Vice President of Education, Vice President of External Affairs, and Director of Student Employment. During the meeting, the current status of the 'Glocal University 30' project was shared with the student body presidents, and opinions were exchanged regarding measures to implement student-centered bold innovation. The 'Glocal University 30' project, initia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ims to select a total of 30 universities by 2026, including approximately 10 universities by 2023, from non-metropolitan areas. The project provides a total of 100 billion won in support over a five-year period. The Ministry of Education seeks to foster leading universities with global brand value through strategic investment and support. The student council president, along with other student representatives, expressed strong support for the university's efforts to promote the 'Glocal University 30' project. A wide range of opinions were presented during the discussion. Student Council President Bae Ji-hoon expressed gratitude to the president and key officials for attentively listening to the voices of the students during the promotion of major university projects. He emphasized the commitment to continue conveying the opinions of students, which are vital for the process of bold innovation. President Park Jin-bae stated, "Universities have a responsibility to provide education that secures a bright future for their students. By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a successful glocal university, we will fulfill our role more faithfully." Since March, our university has demonstrated its dedication to promoting the project by soliciting internal and external opin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Glocal University Innovation Plan. Additionally, the 'Glocal University 30 Innovation Declaration Ceremony' was held.

| Article Public Relations Office for External Cooperation
| Editor & translated by reporter Park Heon-bin(hans8150@jj.ac.kr)

Jeonju University and Glocal University embark on a new phase

Business agreement established with APU, a top private university in Malaysia
On the 15th, our university announced the signing of a business agreement with Asia Pacific University of Technology & Innovation (APU), Malaysia's leading private university.

APU is known for its joint degree program with DMU in the UK, making it an ideal partner to facilitate Jeonju University's global expansion. Building upon this agreement, our university is also pursuing a business agreement with UKM (Universiti Kebangsaan Malaysia), one of Malaysia's top three national universities, and the review of legal documents is currently underway.

Our university is actively striving towards internationalization as the future of local universities. With an existing MOU with the World Korean Trade Association, we have established global base centers in 11 cities worldwide, facilitating various programs such as Living Lab and Global Capstone Program.

Founded by the government in 2004 and subsequently privatized, APU remains Malaysia's top private university, supported by governmental backing. It specializes in the field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nd engages in research exchange projects in the IT sector between the Korean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nd the Malaysian government.

Through this agreement, we aim to promote mutual exchanges between students, encompassing language training for our students and drone technology training for APU students. Additionally, the industrial design departments of both universities have committed to jointly conducting a public design project centered on local culture as a global capstone design project.

President Park Jin-bae expressed his aspirations, stating, "By positioning our university as a competitive institution with global brand value, we will open doors to the world market."

| article Public Relations Office for External Cooperation
| translated by reporter Park Heon-bin(hans8150@jj.ac.kr)

中国重庆建筑科技职业学院领导访问全州大学



据全州大学对外协力弘报室消息，9日中国重庆建筑科技职业学院刘东燕校长一行访问了全州大学。刘东燕校长一行此次访问全州大学的目的在于，为培养全球性人才与全州大学对具体的业务进行切磋协商。

在此之前，两校已经签署协议，在重庆建筑科技职业学院的经营系和人工智能系开设韩国语和一部分全州大学的教育课程。修读完的三年级学生、或毕业生可插班到全州大学。

重庆建筑科技职业学院自2018年起就与全州大学签订协议，并派遣交换生。但由于新冠疫情的缘故，交流中断了三年。航班重新开通之后，重庆建筑科技职业学院最先访问的是全州大学。以此次访问为契机，两校开始为培养全球性人才构想具体的方案。

全州大学被韩国教育部评选为“数码新技术人才培养革新共享大学事业”，这个事业的宗旨在于培养新技术领域下一代核心人才。全州大学的人工智能和实感媒体得到韩国教育部的认可。另外，经营学部设有金融保险系、物流贸易系、不动产国土信息系、会计税务系、IT金融系等专业。经营学部不仅专业性非常强，而且领域也分得非常细致。重庆建筑科技职业学院鉴于以上两点，选择人工智能系和经营学院进行合作。

全州大学则以此次访问为契机，为吸引具备韩国语和专业基础的留学生打下了基础。也将为全罗北道地区输送优秀的外国人才

全州大学留学生在韩屋村尽享美食与风情



为了帮助留学生了解韩国文化，全州大学国际交流院与全州大学学生服事团联合，通过体验全州拌饭、穿韩服游览庆基殿、在照相点留影等项目介绍了全州的美食和风情。

这次活动，首先让外国留学生在课堂上学习韩国文化，然后再让他们到韩屋村亲自体验全州的传统文化。是一个与全州大学学生服事团合作的体验型教育。

参加此次活动中国留学生林有捷（音译，商谈心理系）发表感想说：“能把在教室里学到的内容，到实地亲自体验。这增强了对韩国文化的理解。本来没有机会跟韩国同学聊天，但是通过这次活动，我结交了很多韩国同学做朋友。”

参加这次服事活动的学生服事团韩美研（音译，社会福利系，四年级）同学说：“平时没有机会跟留学生交流，所以有点遗憾。但是通过此次有了跟留学生交流、互相学习对方国家文化的的机会，所以感到很愉快。在介绍韩国文化的过程中，平时感觉很平常的全州也变得非常漂亮了。通过这样的活动，我们也很自豪韩国拥有这样优秀的文化传统。”

Du học sinh trường đại học Jeonju trải nghiệm thú vị ở nông thôn

Những nông trại nhỏ thuộc xã Baekgu tỉnh Kimje đang gặp phải khó khăn thiếu nhân lực làm việc và ngày 1 tháng 6 vừa qua trường đại học Jeonju (hiệu trưởng Park Jin Bae) đã tổ chức hoạt động ý nghĩa dành cho du học sinh trường đại học Jeonju. Các du học sinh có thể cắt tỉa cây nho tại trang trại để giúp đỡ những nông dân ở đó và đã có hơn 50 học sinh đã tham gia vào hoạt động tình nguyện này.

Hoạt động lần này giúp đỡ những người nông dân vào mùa vụ nhưng thiếu nhân lực và để cung cấp nhân lực giúp đỡ cho các nông dân ở đây các du học sinh Việt Nam, Trung Quốc, Uzbekistan, Mông Cổ và Mianma đã tham gia rất nhiệt tình vào hoạt động lần này. Không những chỉ giúp đỡ những người nông dân tại đây mà các bạn du học sinh đã có cơ hội để trải nghiệm văn hóa ở nông thôn.



Du học sinh Việt Nam Vũ Thu Hà (Khoa quản trị du lịch) nói: “ Bố mẹ ở nhà cũng làm đồng nên đến đây thấy nhớ đến nhà và giống như giúp bố mẹ ở quê hương nên làm không thấy mệt” và “ mặc dù vẫn không quen với việc làm đồng như này nhưng ông chủ vườn nho đã giúp đỡ nhiệt tình nên không thấy khó ngược lại thấy rất vui sướng”

Người làm trang trại nhỏ đã chuyển lời cảm ơn đến trường đại học Jeonju và các bạn du học sinh đang theo học tại trường: “ Không có nhân lực cắt tỉa cây nho nên trong lòng tôi nóng như lửa đốt thế nhưng trường đại học Jeonju đã tạo điều kiện bổ sung nhân lực cho chúng tôi nên đã trút đi được nỗi lo lớn” và “ Các học sinh đến từ đất nước khác dành thời gian đến đây là không dễ dàng gì nhưng bằng mọi lý do đã đến và giúp đỡ chúng tôi thật sự rất cảm ơn tất cả các bạn học sinh”

Mặt khác, trường đại học Jeonju đã mở thêm cơ hội dành cho du học sinh có thể cống hiến với xã hội khu vực bằng các hoạt động tình nguyện và một năm có 6 lần có thể tham gia, sau khi tham gia các bạn sẽ được nhận bằng chứng nhận thời gian làm tình nguyện.

전주대학교 신문방송국

2023학년도 2학기 신입 모집

수업과 함께 배우는 곳 —
전주대학교



지원서는 [교내 홈페이지 공지사항\(일반\)](#)에서 다운로드 가능! 📄
(자세한 사항은 QR코드를 확인하세요!)

대학신문사 신입기자 모집

모집 부문

- 취재부
 1. 교내 사건·사고와 행사 취재
 2. 인터뷰 준비 및 진행
 3. 취재 사진 촬영
 4. 신문 기사 작성
- 편집부
 1. 일러스트 및 기사 배너 제작
 2. 신문 디자인 기획 및 제작

교육방송국 신입국원 모집

모집 부문

- 기획부: 영상 기획 및 제작 총괄
- 편집부: 영상 및 이미지 편집
- 아나운서부: 라디오 진행 및 리포터 활동

활동 혜택

- 정기자·정국원 선발 시 미디어장학금 지급
- 신문방송국 활동에 대한 활동비 지원
- 취재에 필요한 기자재 지원
- 학기 별 CP포인트 지급
- 각종 어도비 프로그램 비용 지원
(포토샵, 일러스트, 인디자인, 프리미어프로 등)

지원 절차

-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 지원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
- 면접 일정 협의
- 면접 진행 후 합격 여부 통보

대학신문사 문의처

- 사무실: 학생회관 320호
- Phone: 063-220-2442
- E-mail: news@jj.ac.kr

교육방송국 문의처

- 사무실: 학생회관 322호
- Phone: 063-220-2445
- E-mail: jebs@jj.ac.kr

상시 모집 모집기간

면접 일정 지원서 확인 후 개별 연락

